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

metro
메트로 2015년 5월 12일 화요일 제3213호 www.metroseoul.co.kr

'빅뱅' 3년만에 완전체 컴백

경기도 양평군 양수리에 조성된 고 정세영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묘소 위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장지조성이 금지된 지역이다. 위 사진은 정세영 회장의 생전 얼굴과 고인의 양수리 묘지 전경

'포니정' 정세영 회장 묘지 불법 조성

팔당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일반인 매장 엄격 단속
아들 정몽규 회장 주소 묘지와 같은 필지…눈가림 의혹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54·사진)이 상수원보호지역에 불법으로 아버지 고 정세영 현대자동차회장의 묘지를 조성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바로 옆에 묘소를 조성했지만 10년이 되도록 당국의 단속이나 처벌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정몽규 회장은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버지 묘지 옆 건물로 법정 주소를 옮긴 것으로 나타나 불법 장지 조성 혐의를 감추려는 눈가림이라는 의혹도 일고 있다.

고 정세영 회장의 묘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조성돼 있다. 부지는 9584㎡로 정몽규 회장 소유로 등기돼 있다.

해당 토지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수도법'에 의해 장지 조성이 불가능한 곳이다. 다만 1975년 7월 9일 이전부터 살아온 지역 주민(원고주민)은 예외로 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양평군청 관계자는 11일 "원래 이곳이 고향인 주민만 매장이 가능하고 외지인은 묘를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고 정세영 회장의 주소지는 현대자동차의 설립연도인 1967년부터 서울로 돼있다. 묘지를 조성한 아들 정몽규씨의 주소지 역시 정세영씨의 사망연도인 2005년까지 서울 성북구로 돼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수도법상 매장이 가능한 '원고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장지조성은 불법이다. 원고 주민이 아닌 사람이 상수원보호구역에 장지를 조성한 경우에는 장지법 제1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묘지를 이장해야 한다.

행정관청의 단속 이후에도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두번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정몽규 회장의 주민등록지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이었다가 2006년 7월20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별장으로 이전했다. 그 뒤 2012년 3월 26일 아버지 묘지 옆의 주택 건물(63.24㎡)로 등기를 이전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양수리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장지조성을 한 것이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주소지만 아버지 묘소로 해 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정몽규 회장의 주소지를 기자가 찾아갔을 때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었다. 해당 주소지 우편함에는 새가 둥지를 틀고 있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고 정세영 회장이 수상스키협회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생전에 북한강에서 수상스키를 즐겼기 때문에 정몽규 회장이 유족들과 협의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북한강이 보이는 곳에 장지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 정 회장의 갑작스런 별세로 장지도 급히 조성하면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못 한 것 같다. 정 회장이 묘소 옆의 건물에서 실제로 생활하기도 했으며 불법 장지 조성 혐의를 피하려고 하는 등의 의도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동생인 고 정세영 회장은 1967년 현대자동차의 초대 사장에 취임해 1974년 포니 승용차를 자체 개발·수출까지 하면서 '포니정'이라는 별칭까지 얻은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선구자다. 하지만 1999년 정주영 회장의 뜻에 따라 조카인 정몽구 현 현대차 회장에게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넘겨주고 현대산업개발로 계열 분리해 독립했다.

/김성현기자 newus@metroseoul.co.kr

더 많은 정보와 주요 기사 및 상세 기사를 온라인 사이트(www.metroseoul.co.kr)와 모바일 웹에서 확인하세요

한반도 주변국 잠수함 증강 경쟁 북한이 잠수함에서 모의탄도탄 사출시험에 성공하면서 한반도 주변국의 잠수함 전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왼쪽부터 정박중인 중국 핵잠수함, 북한 로미오급(1800t급) 잠수함, 일본 2400t급 잠수함 서지시오. /연합뉴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한 SLBM 최대 약점은 '잠수함 자체'

작전시간 제한된 디젤잠수함 '감시 가능'…"발사 전에 타격해야"

북한이 사출시험에 성공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은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포의 무기다. 하지만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의 경우 미사일을 발사하는 잠수함 그 자체에 약점이 있었다. 정확하는 핵잠수함이 아닌 디젤잠수함이 가진 약점이었다.

11일 정부 관계자는 "북한의 SLBM 개발로 우리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SLBM을 탑재한 북한 잠수함을) 포착해 발사가 임박했거나 위협을 앞둔 상황에서 제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번 사출 시험에서 공개한) 잠수함은 앞으로 중요 표적으로 한·미 연합 정보 자산에 의해 집중적으로 감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는 현재 연합 정보 정찰 감시(ISR) 자산과 인공위성을 활용한 정찰 자산, 순항 미사일인 '현무-3', 정밀유도무기인 슬램(SLAM)-ER 등을 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북한의 잠수함을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군의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해 탐지거리 약 600㎞의 조기경보레이더인 그린파인 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같이 자신할 수 있는 이유는 SLBM을 발사하는 북한의 잠수함이 디젤잠수함이기 때문이다. 디젤잠수함은 연료 재보급 등 동력 문제로 작전 시간이 제한된다. 보급을 위해 잠수함기지를 드나들다 보면 한·미의 감시망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잠수함 강대국들이 SLBM 발사 잠수함에서 디젤잠수함을 배제하고 핵추진잠수함만을 채택하는 이유다. 핵추진잠수함은 작전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강대국들은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해 본토의 핵전력이 무력화되더라도 보복할 수 있는 핵잠을 배치하고 있다. 전략핵잠(SSBN)이라 불리는 핵잠이다.

하지만 디젤잠수함이 정부의 생각만큼 쉬운 상대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해군 예비역 대령은 수중이 아니면 잠수함을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밀 감시 외에 다른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수중에서 북한의 디젤잠수함을 잡기 위해 성능에서 우위인 핵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지난달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을 바탕으로 그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잠을 건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최소한 2~3년 내에 SLBM을 탑재한 디젤잠수함인 신포급(2000t급) 신형 잠수함을 전력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SLBM 자체를 완전히 개발해 전력화하는 데는 4~5년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핵잠 도입에 나설 경우 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셈이다.

/윤정원기자 yoonj1@metroseoul.co.kr

천안함 폭침 배후 '김격식' 사망

천안함 폭침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김격식(77·사진) 북한 육군 대장이 10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김격식 육군 대장이 지난 10일 0시 30분 '암성중독에 의한 급성호흡 부전'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김격식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 당시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방을 담당하는 북한군 4군단장으로 활동하며 김영철 군 정찰총국장과 함께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격식은 천안함 사건 이후 인민무력부장과 군 총참모장 등 군부 최고 요직을 모두 거쳤다. 특히 김정일 체제부터 오랫동안 야전사령관으로 이름을 떨쳤고, 김정은 체제에서는 원로 군인들이 대거 한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에서도 유일하게 살아남았다.

김격식은 2012년 김정은 체제가 출범하면서 인민무력부장에 올랐으며 2013년 5월 군 총참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해 9월 리영길 현 총참모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다시 군단장으로 물러났다. 김격식은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군단장에 임명돼 지난해 1월 말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함께 항공육전병 야간훈련을 참관하는 등 김정은 체제의 핵심 군부인물로 활약했다. 1957년 19세에 군에 입대한 김격식은 1980년대 말부터 군단장으로 활약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역임했다.

/정윤아기자

'입영신청 탈락' 제보를 받습니다

☞ 제보하실 곳 yoonj1@metroseoul.co.kr

메트로신문은 현행 입영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입영신청을 넣지만 계속된 탈락으로 학업이나 생계 계획을 세우기 힘든 분들, 막연한 기다림에 청춘을 허비하는 분들, 영문을 모르는 탈락으로 심적 고통을 겪는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창조원정대와 함께하는 평창

박 대통령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시찰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교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클라우드 소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대 채권국 독일 "그렉시트는 없다"

"모든 조치 취할 것"

그리스의 최대 채권국인 독일이 다시 한 번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없다고 못박았다. 독일을 향해 그리스를 포기하라는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영국총선에서 보수당의 완승으로 영국의 브렉시트(유럽연합 탈퇴) 가능성이 현실화된 상황이라 더욱 주목된다.

11일 AP통신에 따르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우리 때문에 (그리스 문제 해결이) 실패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리스 트를 막기 위해 독일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그리스와 국제 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금 72억 유로(약 8조4000억원) 지원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초 좌파정부가 집권한 그리스는 협상이 실패한다면 그렉시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리스는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도 최근 의회 연설에서 "공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제 채권단은 타결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오히려 낫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독일은 그렉시트가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그리스를 잡아두기 위해 힘쓰고 있다.

그리스는 12일 국제통화기금(IMF)에 7억5000만 유로(9224억원)를 상환해야 한다. 그리스는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의 잉여자금까지 동원해 자금 확보에 나섰지만 상환액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에서는 그리스의 단기 현금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논의될 전망이다.

/송병형기자 bhsong@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절대 불가"

"자라리 파기해라" 새정치 '공포마케팅' 비판 · 문형표 '은폐마케팅' 반격

새누리당 지도부가 1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 문구 명시는 절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공식 거부한 것이다. 전날 '세금폭탄' 공세까지 가하는 등 청와대의 줄기찬 압박이 제대로 먹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까지 가세해 새정치연합이 은폐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문구 명시 불가로 당론으로 정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도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질문에 출석, 새정치연합의 공포마케팅 비판에 대해 "복지부에게 공포마케팅을 한다고 (비판)하더니 (오히려 야당이) 은폐마케팅을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국민이 쉽게 소득대체율을 올릴 것으로 오해를 할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50%를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두 배 가량 높은 18.8%로 올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공식 당론 결정이 청와대의 입장 발표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의 발표가 지도부 운신의 폭을 좁힌 결과라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청와대의 '세금폭탄' 발표를 두고 대통령의 정쟁 범위'라고 규정하며 맹공격했다. '자라리 파기하라'는 말까지 나왔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방송에서 "어제 청와대의 발표는 매우 적절치 못했다"며 "유 원내대표에게 큰 재상권을 줘야 협상이 되는데, (청와대가) 딱 기준점을 제시해버리니 매우 옹색해져지가 됐다"고 말했다.

/김서이기자 rediun27@metroseoul.co.kr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참석, 국민연금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관련자료를 들어보이며 답변하고 있다. 이날 문 장관은 새정치연합에서 청와대를 향해 '공포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자 새정치연합의 은폐마케팅이 문제라고 반격했다. /연합뉴스

'국회 대책비'가 뭐길래

홍준표 경남지사가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기탁금의 출처로 국회 대책비를 언급했다.

2008년 원내대표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 중 쓰고 남은 돈을 아내에게 생활비로 주었고, 아내가 이 돈을 모아 기탁금에 사용했다는 해명이다. 국회 대책비는 대체 무엇일까.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대책비는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회에서 지급하는 돈이다.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야당 원내대표보다는 약간 더 많은 액수를 받는다. 홍 지사에 앞서 강재섭 원내대표 시절에는 3000만원가량이 여당 몫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도 원내대표 시절 국회 대책비 4000만~5000만원 중 3000만원가량을 여당 몫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통 국회 대책비는 원내대표 아래의 원내부대표단들에게 나누어 지급됐다. 강 원내대표 시절에는 매달 1500만원가량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내행정실을 비롯해 여러 곳에 나누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가 원내대표를 지냈던 시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홍 지사가 아내에게 국회 대책비 일부를 건넸다면 '횡령'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기자

1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월남참전자 미다인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월남전 참전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5월국회 첫 본회의는 내달 회의 전인이다. 연말정산 환급 법안 등이 처리를 예정이다. /연합뉴스

문재인 흔드는 '친노패권론'… 제1야당 붕괴 직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주승용 새정치연합 최고위원이 재보선 참패 이후 줄곧 주장해온 '친노(친노무현)패권론' 때문이다.

11일 새정치연합 내에서는 상황을 관망하던 비노(비노무현) 중진들까지 가세해 문 대표의 리더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가 위기인 걸 모르는 것이 가장 심각한 위기"라며 "문 대표는 더 시간을 끌지말고 오로지 친노의 좌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가볼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야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며칠 전 문 대표가 찾아와서 저녁을 같이 했다"며 "저는 문 대표가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인 대안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와 문 대표의 만남 다음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 최고위원의 사퇴 발언과 정청래 최고위원의 '사퇴 공갈' 발언이 있었다. 김 전 대표는 "(문 대표가) 공갈 발언에 대한 사과만 있으면 상황이 수습될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가는 일"이라고 했다.

이날 조경태 의원도 방송에서 "당내 계속된 분열은 친노패권주의 때문"이라며 "문 대표는 지도력을 상실해 당원들이 크게 신뢰하지 않는다.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선 의원 역시 방송에서 "(말화를 일으킨) 정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친노의 배심"이라며 "지도부가 총사퇴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전남 여수까지 내려가 주 최고위원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주 최고위원은 "정 최고위원의 사과는 받아들였지만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복귀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하기자 lkh@

승부수 띄운 檢, '洪 1억 수수' 혐의 언급 안해

알리바이 기회·증거인멸 차단 의도… 법정서 '승부수' 포석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연막전술을 펴고 있다. 첫 사법처리 대상자로 거명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거인멸 기회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11일 검찰은 홍 지사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 초기부터 극도의 보안 속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주요 참고인과 달리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소환 조사도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언론에서 제기한 '지하주차장 돈 수수설', '공천헌금설' 등 각종 의혹에도 확인을 거부하고 '오보 대응'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사실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외부의 상황이 오히려 수사에 도움이 된다며 느긋한 반응까지 보였다. 어차피 '오염'된 진술이라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대응도 피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8일 홍 지사 소환조사 때도 윤 전 부사장에게 1억원을 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당시 일정 등을 전혀 묻지 않았다.

나경범 경남도 서울본부장을 비롯한 홍 지사의 다른 측근들을 조사하면서도 돈이 오간 경황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수수 사건에서 육하원칙으로 구성되는 범죄사실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을 받은 장소와 시점이다. 두 구성요소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기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부인으로 일관할 게 뻔한 당사자를 굳이 추궁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아래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동선 행적을 복원하면서 돈이 오간 시점과 장소를 특정했고 물증도 확보했다.

수사팀 관계자가 10일 "일시·장소를 특정하지 않고 의혹 당사자를 소환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검찰이 강력통 검사 출신으로 법리에 노련한 홍 지사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유리한 구도로 끌고 가고자 고도의 '수싸움'을 전개하는 셈이다. 홍 지사나 주변 인물에게 '알리바이'(현장 부재 증명)를 만들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다.

이미 윤 전 부사장 회유 의혹을 받는 홍 지사 측의 추가적인 진술 '오염'을 막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기소 전 금품제공 시기 등이 공개됐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되면서 무죄가 났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사건 학습효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

검찰의 연막작전에 홍 지사쪽에서 다소 초조해하는 기색이 엿보인다. 홍 지사는 1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혐의를 재차 부인하면서 검찰이 자신의 소환 조사에서 핵심 범죄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홍 지사는 "(금품수수) 시간과 장소를 묻지 않을 거라면 피의자를 부를 필요가 없지 않나"며 범죄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어 당대표 경선 당시의 일정표도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며 "돈이 오간 시간·장소가 공개되면 일정표를 제출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범죄사실을 특정하면 추가 소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런 까닭에 의혹 당사자를 상대로 핵심 범죄사실을 묻지 않으면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또 다른 쟁점을 불러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뇌물받고 비자 연장' 법무부 직원 영장

법무부 직원이 외국인에 뇌물을 받고 비자를 연장해주다 검찰에 적발됐다. 비자 연장과 관련해 법무부 직원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는 공전자기록위작과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법무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7급 직원 A(4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중국인 등 외국인 20여명으로부터 체류 연장 명목과 함께 27차례에 걸쳐 1100만원을 받아 비자를 갱신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비자 발급이나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서류를 위작했으나 뇌물은 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일부 서류를 잘못 작성한 것은 맞지만 실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미란기자

홍준표 "경선자금 1억2000만원 집사람 비자금"

자금 출처 별도 소명할 계획

홍준표 경남지사가 검찰에서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은 부인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11일 오전 홍 지사는 검찰 소환 후 첫 공식 일정으로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 창사 20주년 기념포럼에 참석해 기자들에게 "1억2000만원은 집사람의 비자금으로 이번에 그 사실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새벽 홍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경선자금에 대해 소명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995년 11월~2005년 12월까지 10여년간 변호사활동을 했다. 그때 번 돈 중 일부를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저몰래 현금으로 10여년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홍 지사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하기 때문에 매달 국회 대책비로 나오는 4000만~5000만원씩을 전부 현금화해 국회대책비로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해서도 홍 지사는 "집사람이 은행원 출신 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대여금고를 빌려서 2011년 6월 당시 3억원 가량 가지고 있다가 경선기탁금으로 (집사람이)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홍 지사는 "아직도 1억5000만원정도가 남아 있다고 한다"며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에 대여금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집사람이) 이번 수사로 오해를 받을까 겁이나 남은 돈은 언니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홍 지사는 변호인을 통해 경선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별도 소명할 계획이다.

앞서 홍 지사는 검찰이 2011년 6월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윤승모 전 부사장과 접촉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주장에 대해 "윤승모의 국회 출입일지는 3년 전 일이고 내 차량은 4년 전이어서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터도 없는 소리다"고 일축했다.

/이슬기기자 rione@

검찰, 成측근 연일 소환… 이완구 접촉 정황 조사

2013년 4월 행적 구체적 복원 우선… 핵심 증인으로 판단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이 홍준표 지사에 이어 이완구 전총리를 정조준하고 있다.

11일 특별수사팀은 이 전 총리의 금품수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핵심 증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를 연일 소환해 조사를 하는 중이다.

금씨는 운전기사 여모씨와 함께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재보선에 출마한 이완구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성 전 회장이 방문할 때 동행했던 핵심 참고인이다.

금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2013년 4월4일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가 자주 연락하는 사이이고, 4월에 직접 만났지만 정확한 일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금씨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성 전 회장의 당시 동선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로 했다. 이미 확보한 여러 물증을 토대로 금씨가 기억하는 성 전 회장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비서관 김모씨 등 이 전 총리의 핵심 측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측근 조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전 총리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연미란기자

현행범 방면하고 종결해버린 경찰 처벌은?

'상황 정확히 파악않고 종결땐 직무유기죄 처벌 가능"

현행범으로 붙잡힌 용의자를 방면해버리고 임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하는 것은 경찰관의 당연할 권리일까?

법조계 인사들은 가벼운 실랑이나 폭행 등으로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찰관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건을 종결해버렸다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다수 있다.

11일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사법경찰 수사준칙)'을 보니, 제17조 1항에서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수사를 개시하고 지체 없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제36조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을 인수했을 때 지체없이 조사해야 할 것도 규정한다.

지난달 8일 112신고를 받은 서울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 도우미로부터 신문 40부를 강제 탈취하다 붙잡힌 신세계그룹 직원 1명을 시민들로부터 인계받았다. 그러나 남대문파출소 측은 이 사건은 상호폭행에 불과하다 판단하고 신세계 직원을 그대로 방면했다.

직무유기죄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시 성립한다.

2008년 2월 대법원 3부는 경찰이 청탁을 받고 불법체류자를 풀어줘 직무유기를 한 경찰 정 모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정 씨가 불법체류자들을 붙잡고도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고 근무일지를 조작하면서까지 풀어준 것은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도박 혐의자를 충분한 조사나 보고 없이 경찰이 풀어줘 기소된 경우도 있다. 김해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이모씨 등은 2007년 김해시 진영읍 소재 도박 현장을 급습해 도박 혐의자 22명을 연행했다. 그러나 지역 유지의 선처 부탁에 범행을 시인한 4명만 입건하고 나머지는 보고절차를 무시한 채 풀어주고 수사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

이에 대법원 1부는 "도박 혐의자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도박자금 일부를 압수조서 작성도 하지 않은 채 돌려준 행위는 의도적으로 수사업무를 방임 포기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달 8일 오전 서울 중구 남창동 지하철4호선 회현역 7번 출구 근처에서 신세계그룹 직원 2명이 메트로신문 배포도우미가 출근길 시민들에게 나눠주던 메트로신문을 강제로 빼앗고 또 다른 신세계 직원은 배포대에 놓여있던 신문 40여부를 탈취해 도주했다.

이에 시민들이 신세계 이마트 직원 1명을 붙잡아 현장에 출동한 서울 남대문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인계했지만 해당 경찰관들이 현행범을 방면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 남대문파출소장은 해당 경찰로부터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음에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으며 남대문경찰서장도 본지 측이 사건에 대한 해명 요구를 해 범죄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사는 지난달 14일 사건을 묵인한 변관수 남대문경찰서장, 오정석 남대문파출소장, 당시 출동 경찰관 2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와 별도로 메트로신문사는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인 증거보전 신청에 따라 당시 관련 범죄가 일어났던 회현역 6, 7번 출입구 방향 폐쇄회로카메라(CCTV) 영상을 확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를 근거로 메트로신문사는 신문을 강탈한 신세계 이마트 직원 2명을 특수강도 및 업무방해죄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승용기자 hons@metroseoul.co.kr

'지역상인 다 죽는다' 11일 오전 광주시 청사에서 윤장현 광주시장과 참석한 신세계 대표이사가 '지역친화형 랜드마크 복합시설 특급호텔 개발'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맺자 골목 지역상인 단체 등이 호텔과 대형쇼핑몰 건립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포스코건설 임원 '또' 뒷돈 거래… 추가 기소

베트남 현장 임원이 업체의 뒷돈을 받았지만 윗선 지시로 공사에서 배제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포스코건설의 뒷돈 거래가 도마에 올랐다. 해당 임원이 구속되면 뒷돈 거래 구속만 이번이 다섯 번째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2009년 포스코건설 베트남 고속도로 공사 현장 소장이던 박모(52) 전 상무는 하청업체 H사 현장소장 전모씨에게 포장공사 하청을 대가로 1억1300만원을 3차례 나눠 받았다.

박 전 상무는 "돈을 보내주면 공사비에 업 시켜주겠다"며 돈을 먼저 요구했다. 또 다른 현지 하청업체 흥우산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수법과 같았다.

H사는 박 전 상무 말만 믿고 베트남 현지법인을 만들어 공사비 견적까지 냈었으나 윗선 개입으로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건설장비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는 이미 다른 하청업체 W사를 밀고 있었다. 장씨는 정동화(64) 전 부회장(당시 포스코건설 사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박 전 상무를 부하처럼 부리며 업체 선정에 개입하던 자였다.

W사에 하도급을 내주라는 윗선 지시에 1억여원을 뒷돈으로 낸 H사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박 전 상무는 W사에 낙찰가격을 미리 알려주고 H사 등 기존 하도급 업체에는 일정 가격 이상을 써내도록 했다. 사업은 결국 W사와 S사가 공동으로 따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8일 박 전 상무를 배임수재와 입찰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그는 베트남 현지에서 비자금 385만 달러(약 40억원)를 조성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W사 측에서 하도급 대가로 15억원을 챙기고 박 전 상무에게 요구해 포스코건설 퇴삿돈 10억원을 뜯어내는 등 횡포를 부리다가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장씨가 포스코건설 사업을 좌지우지한 배경에 정 전 부회장이 있었다고 보고 이런 경로로 조성된 뒷돈이 그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추적 중이다. 또 베트남에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포스코건설 수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임원들이 국내에서도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2012년 10월 경북 하이테크밸리 조성공사의 하청 대가로 업체에서 수억원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박모(56)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번 수사로 구속된 5번째 전현직 포스코건설 임원이 된다.

/연미란기자 actor@

"흡연·질병 필연적 관계 판단 어려워"

헌재 담배사업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담배사업법은 합헌이다"고 판결했다.

담배의 제조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 것이다.

11일 헌재는 "흡연피해자와 의료인 등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직접흡연자의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간접흡연자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로서는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서 국가가 개입해 담배의 제조나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담배사업법에서 담배 성분 표시나 경고문구 표시 등 여러 규제를 통해 직접 흡연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안전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헌재는 "간접흡연 피해는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발생한 담배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라며 "담배의 제조 및 판매가 허용돼 흡연할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 어떤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이들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청구인 중 한 명이었던 박재갑 전 국립암센터 원장과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등은 헌재 결정 후 비판 성명서를 내고 "담배와 폐암 등 질병 사이에 필연적 인과 관계는 이미 의학적 역학적으로 증명됐다며 담배 제조와 매매를 금지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연미란기자 actor@

11일 헌법재판소는 담배의 제조나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담배사업법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내 은행권 "님아, 그 강을 건너지마오"

<NIM>

은행 1분기 순익 2조1000억원… NIM 역대 최저치

올 1분기 시중은행들의 당기순익은 선방했지만 핵심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은 여전히 은행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로 예대금리차가 축소된데다 예금과 대출 등 은행 본업에서 고전했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2015년 1분기 중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줄었다.

특히 순이자마진의 경우 1.63%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예대금리차의 축소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2010년 이후 순이자마진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1분기 중 예대금리차는 2.03%p를 나타냈다. 또 2012년 2.59%p, 2013년 2.31%p, 2014년 2.18%p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8000억원 늘어났다. 또 국내은행의 영업외손익도 65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03억원 확대됐다.

지난해 실적의 걸림돌이 됐던 대규모 대손충당금 악재가 없었던데다 주택거래 호조로 인한 대출 성장과 일부 은행의 법인세 환급 소송 승소 등 일회성 요인에 기인한 것이다.

앞서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합병과정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1803억원의 법인세를 환급받았다. 우리·산업은행 등 6개 은행도 삼성자동차 관련 지연이자 수익으로 2966억원을 받았다.

결국 보유 중인 주식과 채권, 소송 등으로 수익을 올린 셈이다.

같은 기간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0%로서 전년 동기(0.29%) 대비 0.12%p 상승했고 자기자본순이익률(ROE)도 5.35%로서 1.67%p 증가했다.

이는 작년보다 개선된 것이지만 최근 10년('05년~'14년) 평균(ROA 0.60%, ROE 8.04%)과 선진국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다.

비이자이익은 수수료와 유가증권 관련 이익 증가로 지난해보다 1조3000억원 오른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1분기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평가익과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채권가치 상승이 힘이 됐다.

이밖에 경남기업 등 일부 대기업의 법정관리와 워크아웃 악재로 대손준비금 전입액을 포함한 대손비용은 2조7000억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채태원기자 ☞ vell209@metroseoul.co.kr

동부화재, 미얀마에 사무소 개소

국내 손보사중 첫 진출

동부화재는 11일 미얀마 양곤 소재 샹그릴라 호텔에서 양곤 주재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하고 국내 손해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얀마 보험시장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부화재는 지난해 12월 당국으로부터 주재사무소 개소 인가를 획득했다. 이후 현지 시장에 대한 조사와 영업 노하우 습득에 주력해왔다.

동부화재가 진출한 미얀마는 최근 5년간 10%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인도차이나반도 국가중 가장 각광받는 신흥시장이다. 이 기간 손보시장도 46% 성장했다.

미얀마는 지난 2012년 민간에 보험시장을 개방해 현재 12개의 현지 보험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은 "(현지사무소는) 앞으로 미얀마 국민과 보험시장을 이해하고 현지에 필요한 보험서비스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한국 손보사를 대표해 양국의 보험사 간 이해를 높여 줄 수 있는 가교 역할도 수행해 현지 보험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동부화재는 11일 미얀마 양곤 소재 샹그릴라 호텔에서 양곤 주재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서 (왼쪽부터) 세인 민 미얀마 보험국 부국장, 이백순 대사,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미얀마 재무부 차관 등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동부화재 제공

외국인 근로자과 함께하는 역사탐방 KB국민은행은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근로자 초청 '생생 모국어지원 한국역사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 외국인근로자 45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경기도 여주 목아박물관과 세종대왕릉, 신륵사 등을 둘러봤다. 탐방에 참여한 외국인근로자들이 경기도 여주 소재 목아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공

中 보험업계, 세계 부동산 '큰손'으로 부상

미국·영국 대형 부동산 잇따라 매입… 당국도 투자확대 위해 규제완화

최근 자국시장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중국 보험업계가 해외 부동산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차이나라이프와 핑안보험은 최근 미국 부동산 업체인 티시먼스파이어(Tishman Speyer)와 5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Boston) 재개발 사업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의 미국 부동산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영국 등에서는 이미 부동산 시장에 진출해 있다.

핑안보험은 지난 2013년 7월 독일상업은행 부동산 그룹 산하의 펀드로부터 영국 보험그룹 로이즈(Lloyd's)의 런던 오피스 빌딩을 매수했다.

중국 양광보험은 지난해 10월 호텔체인업체 스타우드그룹과 4억6900만 호주달러(약 4000억원)에 호주 시드니에 있는 쉐라톤온더파크 호텔을 인수했다.

같은 기간 중국 안방보험도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 중국 안방(安邦)보험에 19억5000만 달러(약 2조800억원)에 사들이기도 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해외투자로 중국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총 투자 규모는 지난해 136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2년 전(54억 달러)보다 2.5배 성장한 규모다. 올해도 지난 4월까지 총 25억 달러 이상을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 보험사의 해외투자 확대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촉진 정책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CIRC)는 지난 2012년 보험사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부동산 비중 상한선을 15%에서 30%로 확대했다.

지난해 2월에는 기존에 존재하였던 보험회사 종목별 해외자산 비중 상한선 규제를 폐지했다. CIRC는 이어 같은해 4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해외투자 프로젝트 인가와 신고 관리방법', 5월 중국 상무부(MOFCOM)의 '해외투자 관리방법' 등을 통해 해외투자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 심사제도 개선방안과 해외투자에 필요한 자금전달 간편화 방안도 발표했다.

중국보험사들은 부동산 외에도 보험사 인수 등 다양한 해외투자도 진행하고 있다.

안방보험은 지난해 벨기에 보험사 피디어의 지분 전량을 사들이고, 프라이빗 뱅킹과 기업대출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벨기에 델타로이드은행도 인수했다.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입찰에도 참여한 안방보험은 지난 2월에는 보고인베스트먼트그룹(이하 보고펀드)으로부터 국내 생명보험사인 동양생명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좌원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해외투자 규제완화와 사업포트폴리오 다양화 필요성 증대로 중국 보험사들의 해외투자액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며 "당분간은 적극적인 해외투자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세계에서 중국 보험사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khs840@

수은, 공기업 6곳과 인프라 수출 지원 MOU

한국수출입은행은 11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해외 인프라사업과 관련해 국내 6개 공기업과 '인프라 수출지원 확대를 위한 파트너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공기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 인프라사업 분야별 금융 협력 ▲해외 사업 정보와 사업발굴 정보공유 ▲금융협력 대상 해외 인프라사업 공동발굴 ▲인프라 협의회 구성·참여 등이다.

/김형석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길00(송월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권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5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00

후강퉁 시대… 삼성證, 업종 내 주도株 우뚝

주식중개 점유율 60% 육박 수요 증가 최대 수혜주 기대

삼성증권이 거래대금 증가와 후강퉁 중개영업 호조로 증권업종 내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삼성증권이 해외 주식중개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를 입고 있다"며 2분기부터 업종 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최근 공시를 통해 "연결재무제표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1120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833억4500만원으로 85.5% 늘었고, 매출액은 1조1538억7100만원으로 63.2% 증가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증권의 1분기 순이익은 전망치인 1034억원을 19% 밑돌았다"면서도 "고객 자산과 수수료 수익 기반이 지속되고 있어 구조적 성장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밸류에이션(가치평가)보다 모멘텀(상승 동력)이 중요시되는 증권주 속성과 거리가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증권업종의 단기 모멘텀이 약화될 전망이지만 중기적으로는 고객자산 증대에 따른 수익모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파생결합상품 판매 호조와 상품운용 손익 증가도 실적 호조에 한몫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연구원은 "주식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은 수수료 기준 전년 동기 대비 7.7%에서 9.3%까지 상승했고 최근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 판매 호조에 따라 판매잔고도 전분기 대비 12% 증가한 4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후강퉁(상하이 증시와 홍콩 증시 간 교차거래) 시행 이후 삼성증권의 해외 주식중개 수수료가 급증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주식중개 수수료는 전분기보다 211% 증가했다. 해외주식이 순수탁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에서 12.2%로 크게 높아졌다. 후강퉁 주식중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60%에 육박해 눈길을 끈다.

현대증권 이태경 연구원은 "삼성증권은 후강퉁 점유율이 60% 내외로 국내 증권사 가운데 해외주식을 가장 잘 판다"면서 "중국 증권사 자료를 직접 번역해 제공하고 있고 경쟁사들은 빈약한 인력으로 조잡이 보조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현재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NH투자증권도 "삼성증권이 안정적인 수익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승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신규 수익원으로 볼 수 있는 독보적인 해외주식 약정 부문의 약진과 상대적으로 충성도가 높은 근본한 자금이 예탁자산 성장을 이끌어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처럼 각종 호재가 잇따르자 주요 증권사들은 삼성증권의 목표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증권에 대한 목표가를 종전 6만4000원에서 7만1000원으로 10% 올리고,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현대증권도 삼성증권을 해외 주식중개 수요 증가의 최대 수혜주로 꼽으며 목표가를 기존 6만2000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민지기자 minj@metroseoul.co.kr

KDB대우證 "MTS로 해외주식 사세요" KDB대우증권(사장 홍성국)은 11일부터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MTS)인 스마트네오 글로벌(SmartNeo Global)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네오 글로벌은 기존 현재가 조회, 주문기능, 채위선물 차트, 종목정보, 잔고조회, 환전서비스 등의 기존 기능이 해외주식거래까지 가능하다.

300만원 이상 이체·송금땐 30분간 ATM서 못 찾는다

금감원, 금융사기 예방 인출 지연시간 20분 연장

금융감독원이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현금 이체된 자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입금된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시행되고 있다.

금융사기범들이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연 인출 시간을 피해가자 금감원이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은행은 이달 19일부터 지연 인출 시간을 10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여타 은행은 상반기 중에, 저축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타 금융업권은 3분기 중에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채신지기자

내츄럴엔도텍, 상장폐지설… CNK인터 전철?

금융당국·한국거래소 불공정 거래혐의 조사 개미 투자자 소송 준비

가짜 백수오 논란을 일으킨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상장폐지론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주가 조작으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한 CNK인터내셔널이 결국 상장폐지되면서 내츄럴엔도텍도 이 같은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개미 투자자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며 조심스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부장검사 김종범)은 지난 6일 내츄럴엔도텍 관계자 3명을 소환해 충북 영농조합 등에서 백수오를 구입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츄럴엔도텍이 사용한 백수오가 재배된 방법과 유통·판매 과정 등을 확인한 후 백수오와 모양이 비슷한 이엽우피소가 섞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4.85%(2680원) 내린 1만52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달 21일 종가기준 8만6600원에서 12거래일 만에 82%나 떨어진 것이다. 한때 1조9000억원에 달했던 내츄럴엔도텍의 시가총액도 200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지난달 16일 장중 한때 9만1200원까지 치솟아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22일 한국소비자원이 가짜 백수오 논란에 불을 지핀 것을 시작으로 30일 식약처가 이엽우피소 검출 결과를 발표하자 주가는 휴지 조각이 됐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내츄럴엔도텍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츄럴엔도텍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소비자원 발표 직전 주식을 대량으로 처분한 점 등에 주목하고 있다.

내츄럴엔도텍 주가는 가짜 백수오 논란으로 연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도 백수오 유통 과정과 주가 조작 의혹에 전면 조사에 나서자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업계에서는 내츄럴엔도텍의 상장폐지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CNK인터내셔널의 상장폐지 사례와 비슷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6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CNK인터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10년 외교통상부가 CNK마이닝이 카메룬에서 매장량 4억16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고 발표하자 CNK인터 주가는 30배 넘게 폭등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 개발사업이 과대 포장됐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자 주가는 폭락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오덕균 전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되면서 CNK인터 주식 거래도 정지됐다.

법원은 지난 1월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CNK인터는 결국 상장폐지됐다. 오 대표의 상장사 신고·공시의무 위반 등에 유죄가 결정된 것이다.

CNK인터 소액주주연합은 상장폐지 반대 집회를 갖고 서울남부지법에 상장폐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현재 내츄럴엔도텍 투자자들은 '투자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회사와 김재수 내츄럴엔도텍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상장폐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최종 부도, 은행 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 발생, 최근사업연도 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 상 부적정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 2년간 3회 분기·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을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측은 "내츄럴엔도텍의 상장폐지에 대해선 논의할 단계가 아니고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상폐 논란을 일축했다.

/김보배기자 bobae@

벤츠, 中企 먹거리 '중고차 매매' 시장 눈독

중기 적합업종 지정됐지만 수입차업체 규제대상 제외

스타클래스 네트워크 확대 타 브랜드 차량도 매입 나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 중고차 시장까지 발을 넓힌다. 중고차매매업은 동반성장위가 선정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신규진입과 확장이 금지됐다. 그러나 연간 2조 매출 규모의 벤츠코리아는 중고차 매입 판매 서비스 브랜드 스타클래스(StarClass)를 통해 중고차 매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1일 최덕준 벤츠코리아 부사장은 스타클래스 수원 전시장에서 열린 스타클래스 익스피어런스 데이 행사를 열고 "스타클래스 전시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내 시장에서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비즈니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벤츠의 중고차 매매 브랜드 스타클래스의 정비소에서 한 차량이 점검을 받고 있다. /벤츠코리아 제공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3월 중고자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국내 중고차 매입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 확장에 제재를 받지만 벤츠코리아와 같은 수입차 업체들은 당국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허점을 이용해 중고차 매매업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것.

수입중고차 매매는 국내 시장의 떠오르는 블루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연간 수입 중고차 거래 대수는 2012년 17만7028대, 2013년 21만1640대, 2014년 24만7141대로 매해 약 18% 안팎의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벤츠의 경우 작년 E클래스는 1만5017대, S클래스는 8767대가 거래돼 수입중고차 매매 순위에서 각각 2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물량을 스타클래스를 통해 매입 판매할 경우 벤츠코리아의 영업이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코리아에 따르면 2011년 9월 최초 오픈한 스타클래스는 꾸준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현재 서울(양재, 용답), 수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3곳의 스타클래스 공식 전시장 이외에도 죽전, 마산, 부산 등에 4개 전시장을 추가 오픈해 총 7개의 전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벤츠코리아는 스타클래스를 통해 차량을 구입한 고객이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할부 우대해 주는 등 금융 서비스하지 원지고 있다.

스타클래스는 작년 7월부터 벤츠 차량뿐 아니라 타 브랜드 차량까지 매입하고 있다. 자사 수입차를 매입한 뒤 재판매하던 사업을 타사 차량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스타클래스의 차량 판매량은 전년 대비 2배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고자매매협회 관계자는 "중고자 시장에서 수입차 점유율이 갈수록 늘어지고 있는데 벤츠같은 거대 수입차 브랜드가 금융서비스까지 제공하며 수입중고차를 매입할 경우 영세 상인들의 수입차 매입물량 확보가 더욱 힘들어 질 것"이라며 염려했다.

이에 대해 천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이 이뤄진만큼 수입차 브랜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위 관계자 역시 "올해 하반기 수입차 브랜드의 자동차 매매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사상 최대 매출액인 2조2045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대비 62%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21억원으로 188.3% 급증했다. 국내에서 거둔 이익은 해외 주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40% 상당에 달하는 484억원을 주주인 독일의 다임러 AG(지분 51%)와 홍콩의 스타오토홀딩스(주)(49%)에 배당했다.

반면 벤츠코리아의 작년 사회공헌비용은 11억2061만원으로 영업이익의 0.9% 수준에 그쳤다.

/김소라기자 srsun@metroseoul.co.kr

벤츠, 잔고장에도 수리비 '폭탄'

부품교환 대신 전체 교체 수백만원대 수리비 요구 벤츠운전자 불만 '봇물'

메르세데스 벤츠 운전자들이 끊이지 않는 수리 고장과 불만족스런 사후서비스(AS)에 몸살을 앓고 있다. 고장 이유도 벤츠 모델 별로 제각각 인데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들은 고장 부품과 연결된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며 몇 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수리비를 제시하고 있다.

11일 자동차쇼핑몰 보배드림 회원 김승민(가명)씨는 "지난 1월 벤츠 C클래스 운전석 손잡이 부분에 문제가 생겨 벤츠서비스센터에 방문했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그 부품만 따로 나오지 않아 도어트림(도어 실내 쪽의 인쪽 마감부품)을 통째로 교체해야 한다며 290만원의 견적을 제시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울며 겨자 먹기로 공임(수리에 대한 품삯)을 포함해 290만원을 주고 고쳤다"며 "국산차의 경우 5만원 대에 해결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승철(가명)씨도 "역시 AS에서 많은 폭리를 취한다"며 "다른 벤츠운전자는 내부 문고리가 고장난 채로 운전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회원들도 발품을 파는게 제일 저렴,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권유하는 등 사후관리는 고객의 몫이라고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센터 차량 점검 행태와 긴 수리 시간도 운전자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이형석(가명)씨는 "최근 벤츠E350 출고 직후 주행을 하는데 배기구에서 다량의 흰 연기가 나오고 시동이 꺼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벤츠 영업소 관계자는 "새 차이다보니 기름 같은 것이 타는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황당한 대처를 했다. 그러나 이씨의 차는 시동이 꺼지고 엔진 체크 경고 등에 불이 들어오는 등 변화가 없어 결국 차를 입고시켰다.

그는 "영업사원이 차를 리셋해야 한다며 하루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며 "다음 날 약속이 있으니 문제없이 차를 가져다 달라고 했는데 사측에서 부품 교체할 곳이 생겼다며 2주를 더 기다리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수입차는 무상보증기간이 끝나면 운전자들은 엄청난 수리비에 손발을 잘라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며 "높은 수입차 가격을 감안하더라도 뒤따르는 수리비 공임비 대차비가 지나치게 높아 보험료 상승을 유발해 운전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라고 말했다.

/정용기기자 yoncc@

광물公, 유동성 위기… 고정식 사장 경영능력 도마

자산매각·경영효율화 실패 작년 부채비율 219% 넘어

고정식 사장이 이끄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부채비율이 219.5%(4조202억원)를 넘어섰고 1년 안에 갚아야 할 단기금융부채비율이 36.9%에 달했다. 특히 광물공사는 정부에 작년 부채비율을 175%대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목표달성에 실패하고 오히려 부채를 늘렸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공사를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고 사장의 경영능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1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작년 광물공사의 부채는 4조2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4.1%(4967억원) 증가했다. 부채 비율도 219.5%에 달해 전년(207.6%)에 비해 11.9%포인트 높아졌다.

광물공사는 재무구조 개선과 관련한 부채 감축 목표 달성에도 실패했다.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지난 2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물공사는 작년 초 중기경영목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오는 2017년까지 부채 1조528억원을 감축키로 하고 부채비율도 136.4%로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실제 작년에는 부채비율은 175.8%까지 낮추겠다는 게 공사의 목표였다. 그러나 오히려 부채비율은 200% 이상으로 늘리는 결과를 냈다. 사실상 고 사장이 국유의 자산 매각과 사업조정, 경영효율화에 실패한 것이다. 때문에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광물공사를 부채 감축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공사의 재무관리 실태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광물공사 내 비상경영대책반을 꾸려 해외자산 매각 등 부채감축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광물공사의 부채가 늘고 유동성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이어서 더 이상 정부차원에서 좌시할 수 없다"며 "공사가 보유한 해외자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경영효율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광물공사가 1조원 이상 투자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등 해외 자산을 적극적으로 처분할 것을 산업부는 권고할 방침이다.

/송정훈기자 ssjh@

제일기획, 원쇼 광고제 역대 최다 수상

금·은·동 등 9개 본상 수상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임대기)이 뉴욕에서 열린 2015 원쇼 광고제(The One Show)에서 9개의 본상을 수상하며 원쇼 광고제 사상 국내 광고업계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지난 1973년 창설된 원쇼 광고제는 칸 광고제, 런던 디앤에드(D&AD)와 함께 글로벌 업계에서 높은 권위를 자랑하는 광고제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젊은 감각을 중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4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열린 올해 광고제에는 필름, 모바일, 소셜미디어 등 13개 카테고리에 전 세계 65개국에서 2만 여 작품이 출품됐다.

제일기획은 금상 2, 은상 1, 동상 3, 메릿 3 등 총 9개의 상을 받아 지난 2013년에 자체적으로 세운 국내 업계 최다 수상기록(7개)을 2년 만에 경신했다. 제일기획은 지난 3월 태국에서 열린 애드페스트(ADFEST) 광고제에서 13개의 상을 받으며 애드페스트 사상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데 이어 원쇼 광고제에서도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는 겹경사를 이뤘다. 특히 원쇼 광고제는 유명 국제 광고제 중에서 시상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쟁률(약 50대 1)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최다 수상 기록의 의미가 크다.

/송정훈기자

카카오택시 시장 잠식에 속 타는 스타트업

보조금 지급하며 파상공세… 한달새 회원 6만명
택시콜 앱 업계 "브랜드·자본력에 밀려 고객 뺏겨"

카카오택시가 빠른 속도로 콜택시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카카오택시는 서비스 출시 한달 이만에 회원수 6만명을 돌파했다. 전국 택시 수가 28만여대인 것과 기존 콜택시 회원 가입자 수가 6만3000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급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런 성장 속도라면 시장 1위 사업자인 SK플래닛 'T맵택시'의 점유율을 넘어서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진입장벽이 낮은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시장의 스타트업(벤처) 업체들이 결국 시장에서 고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되면 현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콜택시 수수료를 대폭 인상해 그동안의 수익을 보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익명을 요구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결국 영세업체를 없애고 유일한 대항마인 T맵택시마저 영향력이 떨어지면 현재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는 투자비를 콜택시 요금을 올려 회수할 것이고 이는 고객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카카오택시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택시기사의 승객은 반기는 분위기다. 경쟁 사업자 'SK 나비콜'과 달리 승객과 택시기사 모두 연결 수수료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앱을 사용하는 택시기사에게 첫 달 최대 4만원까지 보조금을 준다. SK나비콜의 경우 콜장비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매달 4만원씩 부담해야 하고 연결 건당 수수료도 1000원씩 사측에 지불한다. 고래도 콜비를 택시기사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카카오택시는 진입장벽도 낮다. 스마트폰으로 기사용 앱을 설치하고 기사 인증 과정만 거치면 바로 사용가능하다.

초반 시장을 선점한 카카오택시는 카카오톡의 인지도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방대한 기사 풀(pool)을 확보해 물량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승객이 택시를 호출했을 때 빠르고 원활하게 배차가 이뤄지려면 택시 인프라 확보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카카오 택시의 무료정책으로 콜택시시장에 파상공세가 이어지면서 스타트업 업계는 침울한 분위기다.

택시콜 앱 개발 업체 관계자는 "카카오톡이라는 브랜드와 자본력에 밀려 고객을 뺏기고 있다"며 "거대 자본을 내세운 카카오택시의 무료 정책은 결국 우리같은 스타트업을 다 죽이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택시 앱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로 국내 택시 앱 사업자는 카카오택시, 이지택시, 리모택시, 백기사 등 10여개가 된다. 하지만 이제껏 토종 벤처들이 먼저 진출했던 시장에 카카오택시가 진입하면서 이들은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서비스 초기 단계라 수익모델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단계"라며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비스 안정화와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LG G4 디지털 옥외광고 패션피플 눈길 집중 LG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 신촌역 등 서울시 주요 지하철역에서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 광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광고들은 실시간으로 디지털 화면을 바꾸면서 G4 제품 이미지와 현직 패션모델들이 G4를 들고 있는 모습을 번갈아 보여준다. LG전자는 천연가죽 세라믹 후면커버와 슬림 아크 디자인을 채용해 패션 아이템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G4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이다. /LG전자 제공

삼성 에어컨 Q9000, 누적 판매 50만대

2015년형 공기청정 기능 강화 전체 판매량 40% 차지 '인기'

삼성전자는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사진)이 2013년 첫 출시 이후 올해 4월까지 누적 판매량 50만대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은 3개의 원형 바람문과 슬림한 실루엣의 차별화된 디자인은 물론 절전 냉방·청정 기능을 갖춰 소비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삼성전자가 출시한 공기청정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제품은 지난 4월 말 때를 기준으로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이 전체 판매의 40% 이상 비중을 차지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15년형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은 '에어 3.0 디스플레이'를 통해 실내의 온도·습도·청정도를 눈으로 확인하며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일년 내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됐다. 또 압축기와 모터의 효율을 높여 전 모델 1등급의 150% 이상 효율을 갖춘 에너지 프론티어'로 단점에 전기료 부담까지 줄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스마트에어컨 Q9000 이 기록적인 판매량을 달성하며 프리미엄 에어컨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며 '유례 없는 폭염이 예상되는 올 여름 판매량을 통해 진가가 입증된 삼성 스마트 에어컨 Q9000'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조한진기자 h…@

대우조선해양, STX프랑스 인수 초읽기

산업銀, 인수검토 정식 요청

대우조선해양이 STX프랑스 인수를 검토하며 사실상 추진에 들어갔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최근 산업은행으로부터 STX프랑스 인수 검토를 정식으로 요청받았다.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STX프랑스의 수주 실적과 시황 전망, 매입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수 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지분 31.5%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있다.

대우조선은 인수 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우조선은 올해 초 전략·특수선 분야 임원진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STX프랑스 조선소가 있는 프랑스 생나제르로 보내 현지상황을 살핀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STX프랑스 매각에 어려움을 겪자 이를 대우조선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TX그룹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지난해 STX그룹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STX유럽 계열사인 STX프랑스와 STX핀란드의 분리 매각을 추진했다.

이에 STX핀란드 지분은 독일 조선사와 핀란드 정부에 매각됐지만 지난해 말을 목표로 했던 STX프랑스 매각은 5개월째 지연됐다.

STX프랑스 지분은 STX유럽이 66.7%, 프랑스 정부가 33.3%를 보유하고 있다.

정성립 대우조선 신임사장 내정자가 STX조선해양 대표이사 출신이라는 점도 이번 인수 건에 영향을 끼쳤다.

이달 29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장으로 선임되는 정 내정자는 홍기택 산업은행 회장과 경기고등학교 동문이기도 하다.

어려운 시황에서 자금 마련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만 대우조선이 크루즈선 전문조선소인 STX프랑스를 인수하면 해당 분야 등 사업 다각화와 글로벌 시장 확대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

대우조선은 2007년 크루즈선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STX유럽의 전신인 아커야즈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며 "신임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이라 당장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잠재적인 인수사들이 매각 작업 중에 있다"며 "대표이사 선임 건이야 산은이 관계할 수 있겠지만 선임 이후에는 대우조선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사항"이라고 전했다.

/서예은기자 yeseun@

"8.5초 만에 1G 다운로드" SKT 'LTE+WiFi' 망 구축

서로 다른 네트워크인 LTE망과 와이파이(WiFi)망을 동시에 사용해 데이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신기술 상용화 준비가 완료됐다.

SK텔레콤은 LTE망과 와이파이망을 동시에 사용하는 이종망 동시 전송 신기술 '멀티패스' 의 네트워크 적용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제조사와 함께 진행 중인 단말 적용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일부 단말의 업그레이드 형태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멀티패스가 상용화되면 최고 300Mbps 속도의 3밴드 LTE-A와 최고 866.7Mbps 속도의 '기가 와이파이' 등 2개의 망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결합효율을 극대화할 경우 이론상 최고 1.17Gbps의 속도가 가능해져 '우선 1Gbps 시대'가 열리게 된다.

우선 1Gbps의 속도로 1G 크기의 데이터를 받는데 걸리는 시간은 8.5초 정도 소요되며, 초고화질의 영상을 다운로드 시작 직후부터 끊김 없이 시청할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

네이버 포털업계 첫 창조경제 활성화 나섰다

빅데이터·클라우드 집중 육성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춘천시에 네이버의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한 창업 생태계가 조성될 예정이다.

11일 문을 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는 협력사인 네이버의 빅데이터 활용 능력과 클라우드 소싱 경험, 사업 노하우 등이 십분 활용될 전망이다.

데이터 기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겠다는 게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의 목표다.

네이버는 우선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가 국내 빅데이터 산업의 요람으로 클 수 있도록 자사 기술을 활용, '빅데이터 포털'과 '빅데이터 마켓'을 구축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빅데이터 포털은 모든 빅데이터 정보를 통합 검색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빅데이터 마켓은 실용 데이터와 분석 기법, 정보가 거래되는 장터를 뜻한다.

구축된 빅데이터는 자연재해 발생 확률을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관련 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된다.

네이버는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관련 기술과 솔루션 창업사례를 공공기관 등과 공유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빅데이터 분야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인턴십 기회를 주거나 신규 서비스 개발에 관한 프로젝트 등 함께 추진하는 등 산업 진출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네이버가 노하우를 공유할 또 다른 분야는 클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K-클라우드'라는 가칭이 붙은 이 웹 기반 플랫폼은 네이버가 강원센터와 공동으로 구축·운영해 예비 창업자와 기업에 필요한 혁신 아이디어를 집단 지성으로 확보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강원센터는 표준계약서와 약관 운영을 통해 플랫폼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네이버는 활용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한다.

네이버는 나아가 강원도의 전략 사업인 관광, 헬스케어, 바이오 등 특화된 ICT 기반 융복합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애니메이션 등 특화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도록 웹툰 등 유통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힘을 보탠다.

/정문경기자 hm1@metro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우즈벡서 AEM 구축

<지능형 원격 계량검사>

KT의 스마트에너지 역량이 해외까지 진출했다.

KT(회장 황창규)는 우즈베키스탄 전력청이 발주한 약 1억1000만 달러(1209억원) 규모의 지능형 원격 검침(AEM) 구축 프로젝트를 최종 계약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지원으로 원격검침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를 설치하고, 계량데이터관리시스템(MDMS), 고객관리시스템(CRM)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KT는 해당 시스템을 향후 2년4개월간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지작, 부하라 등 3개 지역 100만여 가구에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빠른 인구 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전력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즈베키스탄은 KT가 수행하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대규모 스마트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운용 경험을 갖추고 전력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함으로써 융합 ICT 실크로드의 중심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태성 KT 글로벌사업추진실장은 "이번 우즈베키스탄 스마트미터링 구축 프로젝트는 KT가 차세대 성장사업으로 추진 중인 5대 미래융합 서비스 중 스마트에너지 분야 역량을 해외에서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KT는 스마트에너지 분야뿐만 아니라 5대 융합 서비스 전 분야에서 통신, 이종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문경기자

아우디, '2015 R8 LMS컵' 2전 개최

아우디 코리아(대표 요하네스 타머)는 16~17일 전남 영암 코리아인터내셔널 서킷에서 '2015 아우디 R8 LMS컵' 3, 4라운드 경기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인 아우디 R8 LMS 컵은 3월 중국 주하이에서 열린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영암, 타이완, 말레이시아 세팡, 일본 후지, 중국 상하이를 등에 총 6전 12라운드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운드 별로 점수를 채점하는 방식으로 '아우디 R8 LMS 컵 종합 우승', '아마추어 드라이버 부문', '젠틀 드라이버 부문', '팀 부문' 등 총 4가지 타이틀을 두고 자웅을 겨룬다.

아우디 코리아는 국가 대표급 레이서 유경욱 선수가 소속된 수입차 최초이자 유일한 레이싱팀인 '팀 아우디 코리아'로 3년 연속 대회에 참가했다.

프로 선수들 외에 잠재력 갖춘 신예 선수와 수준급 아마추어 드라이버들도 경기에 참여해 기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우디 R8 LMS컵은 R8 LMS 차량으로만 경주를 치르는 아우디의 유일한 원메이크 국제 대회다.

국제 GT3 경주에 적합하도록 경주에 참여하는 R8 LMS 차량의 튜닝을 엄밀히 제한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드라이버의 역량과 전략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

이전 라운드에서 1~3위를 차지한 차량은 밸러스트를 얹고 다음 경기에 임하는 핸디캡 웨이트 시스템도 도입돼 경기마다 치열한 순위 다툼이 예상된다고 사측은 전했다. /이승용기자

14일 한국타이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한 단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타이어 제공

한국타이어,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할 대학생 봉사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2015 드림위드 프로젝트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드림위드 프로젝트는 대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 아동,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실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한국타이어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는 드림위드 프로젝트는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이 희망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돕는 대학생 멘토링 지원한다.

참여하는 대학생은 재능 기부를 통해 나눔을 체험하게 된다.

한국타이어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열린 이번 발대식에는 전국의 115개 대학생 봉사단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21개 팀이 참여했다.

대학생 봉사단은 발대식을 통해 앞으로 활동하게 될 지역아동센터를 이해하고, 각자 팀 활동을 소개하며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타이어 드림위드 대학생 봉사단은 10월까지 전국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 임직원도 멘토나 봉사자로서 드림위드 사업에 참여해 이들을 도울 예정이다.

드림위드 프로젝트는 한국타이어나눔재단과 SBS희망TV 및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함께 기획했다.

우수 활동은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된다.

/이승용기자

SK C&C, '위안화 청산·결제 시스템' 구축

SK C&C(대표이사 박정호)가 11일 중국교통은행 서울지점 위안화 청산체계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으로 선정된 중국교통은행의 업무량 증대에 따른 시스템 확충과 원화 자금·채권 대금 결제 등 실시간 처리를 위해 추진됐다.

위안화 청산결제은행은 중국 인민은행의 결제시스템(CNAPS)과 연결돼 역외 위안화 거래 결제대금의 청산 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SK C&C는 증가하는 위안화 청산 결제 이용을 고려해 교통은행 서울지점의 대외기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교통은행 위안화 청산결제시스템과 한국은행 금융결제망, 한국예탁결제원 공동망을 직접 연계해 위안화 직거래와 위안화 표시 채권 거래 시 동시결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한다.

실시간 결제로 시차에 따른 리스크를 없애 안전하고 신속한 위안화 거래가 이뤄지도록 한다. 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혐의거래 모니터링 및 자동보고체계도 마련된다.

고객 계좌 및 거래 정보에 대한 실시간 감시를 통해 의심스러운 위안화 거래가 탐지·경고·보고되는 체계가 구축된다. /정문경기자

'좁쌀' 샤오미 가전, 한반도 공습 본격화

공기청정기·액션캠 등 내주부터 공식 판매 예정

'작은 애플'로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 4대 IT기업 샤오미의 가전제품이 국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

옥션은 가전전문 수출입 업체 코마트레이드와 손잡고 11일부터 17일까지 샤오미의 공기청정기 '미 에어(Mi Air)'를 1000대 한정으로 오픈마켓 최초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샤오미의 본사 정품이 공식적으로 수입 판매되는 이번이 처음으로, 샤오미가 국내 시장 진출의 포석을 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옥션이 이번에 판매하는 샤오미 미에어 공기청정기는 26㎝×26㎝×73.5㎝ 크기로 지난해 12월에 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국내 230v 콘센트에 바로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젠더를 포함해 24만9000원이다. 국내 공기청정기 대비 평균 28% 정도 저렴하다는 게 옥션측 설명이다.

미에어는 분당 1만 리터의 공기를 걸러주는 세 겹의 필터가 장착돼 있어 초 미세먼지도 여과할 수 있다. 와이파이 환경에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품을 제어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로 필터 수명과 공기 오염도 측정이 가능하다.

샤오미는 국내에 중국산 저가 휴대폰 업체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휴대폰 뿐 아니라 보조배터리와 착용형(웨어러블) 밴드에서 카메라, 스마트TV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샤오미 제품들은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국내에 유통된 샤오미의 제품들은 상당 부분 불법으로 들여온 보따리상 제품이거나 KC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병행 유통시의 정품이 아닌 제품들이었다. A/S 및 고객지원에 대해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 소비자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에 판매되는 제품은 국내 전기용품 안전인증까지 마쳤다. 코마트레이드에서는 1년간 무상 A/S도 제공한다.

코마트레이드는 이번 공기청정기를 시작으로 샤오미의 액션캠 제품 등을 국내에 연속해 선보일 예정이다. 향후 스마트TV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권태욱 기자 21cindun@

뉴질랜드 프리미엄 키위 브랜드 제스프리의 모델들이 1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제스프리 선롱을 썬골드 키위를 선보이고 있다. 썬골드 키위는 기존 골드키위에 비해 과즙이 풍부하고 새콤달콤한 맛이 강해진 점이 특징으로 그린키위의 2배, 오렌지의 3배가 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있다고 제스프리 측은 밝혔다. /제스프리 제공

NS홈쇼핑, 백수오 제품 전액 환불

개봉여부 상관없이 환불

NS홈쇼핑이 판매한 백수오 제품 대해 전액 환불 결정을 내렸다.

지난주 먹다 남은 제품에 대한 환불 결정 후 소비자와 소비자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자 환불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NS홈쇼핑은 11일 "백수오 제품을 구매해 섭취하고 병이 남아있지 않다고 해도 영수증 등 구매내역이 있으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NS홈쇼핑은 지난 8일 "미개봉 제품에 대해서는 전액환불, 개봉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환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NS홈쇼핑은 "백수오 제품의 원료를 직접 수거해 제주테크노파크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등에 DNA검사를 의뢰, 백수오가 확실하다는 결과를 얻은 제품을 판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소비자 피해 구제조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NS홈쇼핑을 통해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구매시기나 개봉 또는 섭취 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객이 환불 대신 적립금을 받기를 원하면 구매액수만큼 적립금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NS홈쇼핑의 전액 환불 결정이 다른 홈쇼핑 업체들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8일 홈쇼핑업계는 구매 시점과 상관없이 남은 제품에 대해서 반품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홈쇼핑업계가 공개한 환불 원칙은 배송 받은 지 30일 이내의 개봉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만 환급해 주던 종전 입장에서 진일보 나아갔다. 하지만 여전히 조건부 환불이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롯데, 신입사원 스펙 안본다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은 12일부터 2015년도 상반기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채용 회사는 롯데백화점·롯데호텔·하이마트·롯데리아 등 14개 계열사로 공채와 인턴 포함 총 100여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스펙태클 오디션은 '화려한 볼거리(Spectacle)'라는 뜻과 '무분별한 스펙 쌓기에 태클을 건다(Spec-tackle)'라는 뜻의 중의적인 의미다. 스펙을 초월해 오직 직무수행에 적합한 능력만을 평가한다는 뜻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역시 지원서 서류 접수시에는 이름·이메일·주소·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만을 기재하게 된다. 해당 직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한 에세이만을 받고, 서류합격자를 선발한다.

면접의 경우 회사별, 직무별 특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오디션이나 미션수행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인재를 선발한다. 예를 들어 롯데호텔의 경우 자체 요리 대회를 열어 모집 셰프가 지원자의 조리 실무능력을 평가하고, 롯데마트의 경우 마트 PB 상품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으로 지원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스펙태클 오디션 채용은 12일부터 21일까지 롯데 채용 홈페이지(http://job.lotte.co.kr)를 통해 지원 접수를 받는다.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서류심사→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되며 6월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들은 각 회사별로 상반기 공채 인턴 채용을 통해 선발된 신입사원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롯데그룹 인사담당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창의성을 가진 우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이번 채용을 준비했다"며 "입사 지원서 접수부터 모든 스펙을 배제한 채 오직 직무 능력만을 통해 선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un@

인천 최초 시내 면세점 '엔타스면세점' 개장

인천 최초의 시내면세점인 엔타스면세점이 남동구 구월동에 개장했다.

엔타스면세점은 6월 그랜드 오픈에 앞서 12~14층의 매장을 프리오픈 형식으로 11일 열었다고 밝혔다.

12층에는 비비안 웨스트우드·만다리나덕·쌤소나이트 등 수입패션잡화와 구찌·레이벤·톰포드 명품 등의 선글라스 브랜드가 입점했다. 국내 면세점 최초로 도입되는 유럽 컨템포러리 의류 편집매장 '살롱 드 시테'에서는 겐조·샘 으랑·아미·톰 브라운 등의 트렌디한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

13층에는 론진·티쏘·라도·엠포리오 아르마니 등의 시계와 액세서리 매장이 자리 잡았다. 홍콩 최대의 명품시계와 주얼리 매장인 '엠퍼러 와치 앤 주얼리'가 국내 최초로 입점했다. 14층에는 주류 및 담배 매장과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국산 화장품, 패션, 식품, 전자제품 매장이 들어섰다. 이 달 말에는 에스티로더·바비 브라운 등의 유명 수입화장품과 톰포드·조 말·불가리 등 향수 브랜드가 입점한 15층 매장을 2차로 고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엔타스면세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판촉사원 등 약 150명의 직원을 인천지역 거주자 위주로 채용했다. 앞으로도 추가 인력 채용 시 지역 인력을 우선 채용할 계획이다.

시리즈 에피그램, 팝업스토어 오픈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이 전개하는 시리즈의 세컨 브랜드 에피그램이 7월 31일까지 창덕궁 돌담길에 위치한 원서동에 팝업 스토어 '올모스트 홈(Almost Home)'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여는 팝업스토어는 1인 가구의 집을 콘셉트로 총 3개 층의 건물에 침실·거실·주방·욕실·정원으로 구성해 실제 거주 형태를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편안한 감성의 에피그램 스타일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한다.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브랜드들도 함께 선보인다. 팝업스토어 운영 기간 동안 소셜 다이닝, 인테리어와 베이킹 세미 클래스 등 다양한 이벤트도 펼칠 예정이다.

풀무원 뮤지엄김치간, 유네스코와 손잡고 김장문화 전파 풀무원(사장 남승우)의 김치박물관 '뮤지엄김치간(間)'이 우리 고유의 김장문화를 알리고 저개발국 교육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손잡았다. 뮤지엄김치간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김치와 김장문화의 가치를 계기로 알리고 저개발국 교육 지원을 위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풀무원 제공

'오너3세' 승계 본격화

이사선임·지분상속 등 식품업계 승계작업 가속

사조 주지홍 총괄본부장　허희수 비알코리아 전무　구지은 아워홈 부사장

식품업계가 '3세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분을 늘리고 주요 직책을 맡기며 3세 체제로 갈아타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지난 3월 사조대림·사조씨푸드·사조해표·사조오양 등 4개 계열사의 등기이사로 주지홍(38) 총괄본부장을 신규 선임했다.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의 장남인 주 본부장이 상장 계열사 등기이사에 오른 것은 2006년 경영수업을 시작한 이후 9년 만이다.

주 본부장은 사조해표 기획실장, 사조해표 경영지원본부장을 역임해 왔다. 주 본부장은 동생인 주제홍 전 이사가 지난해 러시아 출장 중 갑작스럽게 사망한 뒤 주 전 이사의 보유 지분을 상속받으며 지분을 늘려 왔다.

사조그룹은 또 지난달 순환출자 고리를 끊으며 지배구조를 정비해 경영권 승계 작업의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SPC그룹도 지난 3월 허영인 회장의 장남 허진수(38) 파리크라상 전무와 차남 허희수(37) 비알코리아 전무를 삼립식품의 등기이사로 선임했다. 이들 형제는 각각 2005년, 2007년 차례로 SPC그룹에 입사해 지난해 초 나란히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한 바 있다. 업계에선 SPC그룹의 모태인 삼립식품 등기이사 선임을 계기로 이들이 그룹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워홈의 후계 구도도 밑그림이 드러나고 있다. 아워홈은 지난 2월 정기인사에서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막내딸 구지은(48) 전무를 입사 11년만에 부사장으로 승진시켰다.

2004년 아워홈 구매물류사업부장으로 입사한 구 부사장은 구 회장의 자녀 중 유일하게 경영 일선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인사로 경영 승계에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다. 구 부사장은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계열사 합병을 통해 꾸준히 지분을 늘려왔다. 현재 20.67%의 아워홈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정성수 정식품 회장의 장남 정연호(36)씨는 지난해 4월 정식품 관계사인 오케이 사내이사로 선임돼 부서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연호씨는 2013년 1월 정식품과 오케이 기타비상무이사로 취임했지만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승계를 위한 포석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보수적인 주류업계에서도 3세 경영 승계 바람이 일고 있다. 보해양조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창해에탄올 임성우 회장의 딸인 임지선(30) 전무를 대표이사에 선임, 3세 경영을 본격화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각 업체들이 모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지만 통상적으로 오너의 자녀가 등기이사에 오르는 것은 후계작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6913@metroseoul.co.kr

하이트진로, 8년안에 中 법인장 교체

장윤조 부사장 선임

하이트진로 중국법인장이 8년 만에 교체됐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는 부사장 겸 해외법인 중국법인장으로 장윤조(60·사진) 전 두산상사 상해지사장을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신임 장 부사장은 1956년생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한 이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상사 등에서 근무했다.

특히 두산상사에서는 상해지사장을 맡았으며 두산인프라코어 재임 시절에는 중국법인 전무직을 역임했다.

하이트진로는 1994년 중국 시장에 수출을 시작한 후 2008년 북경진로에 독주 업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신임 장윤조 부사장은 중국 시장에 능통한 전문가"라며 "이번 인사는 하이트진로가 중국 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은희기자 21cenlun@

캐리비안베이, 야외 놀이시설 확대 오픈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가 야외 놀이시설을 16일부터 순차적으로 확대 오픈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모든 실내 시설과 일부 야외 시설을 오픈한데 이어 오는 16일에는 워터봅슬레이, 타워래프트, 와일드리버 등을 오픈하고, 30일에는 아쿠아루프, 서핑라이드, 와일드블라스터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워터봅슬레이에서는 26m 높이에서 3개의 바디슬라이드를 통해 맨 몸으로 자유 낙하하는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360도 역회전 슬라이드인 '아쿠아루프'에서는 캡슐 형태의 승강대에서 바닥이 시라지며 체감속도 90km/h로 수직 낙하하는 최고의 스릴을 경험할 수 있다. '타워래프트', '서핑라이드' 등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많다.

아이들을 동반한 손님들은 유아 전용 물놀이 키디풀이나 튜브에 몸을 싣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유수풀 등을 이용하면 좋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모두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연간 회원권'도 선보인다. 통합 연간회원으로 에버랜드는 1년 365일 내내, 캐리비안 베이는 일부 성수기 기간을 제외한 1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랑메일 "한국 프리미엄 와인 시장 공략"

매출 3억원 이상 목표

"랑메일(Langmeil)은 한국의 프리미엄 와인 시장에 집중할 것입니다."

호주 프리미엄 와인사 랑메일의 제임스 린드너 대표(사진)는 11일 서울 서촌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랑메일은 현존하는 포도나무 중 가장 오래 됐다고 기록된 쉬라즈 빈야드로 유명한 호주 프리미엄 와이너리다. 호주의 저명한 와인 평론가 제임스 할리데이로부터 최고등급인 '5스타(STAR)' 등급을 받아 8년 연속 호주 프리미엄 와인 생산자 탑(TOP) 5%에 선정되며 그 품질을 인정받기도 했다.

랑메일은 지난해 10월 매일유업은 계열사인 레뱅드매일을 통해 국내에 런칭된 이후 매월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0병으로 한정 수입된 2012년 빈티지의 경우 50만 원대의 높은 가격에도 4개월 만에 전량 판매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제임스 린드너 대표는 "한국에서 판매되는 호주 와인은 낮은 가격의 와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랑메일은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고급 와인"이라며 "저가 와인 중심의 한국 와인 시장에서 프리미엄 시장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랑메일의 와인 레인지 '올드바인'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올드바인은 35년에서 125년까지의 오랜 수령을 가지고 있는 희소성 있는 포도로 만든 랑메일의 대표적인 와인 레인지다.

애경 '교정치아 맞춤형 칫솔' 출시

애경(대표 고광현)의 토털 오럴케어 브랜드 2080이 '교정크리닉 칫솔'을 출시했다.

2080 교정크리닉 칫솔은 교정장치 장착으로 인해 좁고 복잡해진 구강 안쪽까지 효과적으로 케어할 수 있도록 교정치아 맞춤형으로 설계된 교정전문 칫솔이다.

칫솔중앙이 U자형 홈으로 설계돼 교정장치와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찌꺼기 및 프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어금니까지 쉽게 닿을수 있도록 기존칫솔 헤드 대비 58% 작은 칫솔헤드로 설계됐다.

지난 8일 하나은행 대강당에서 열린 미래 통일리더 아카데미 발대식에서 한국장학재단 곽병선 이사장과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미래 통일리더 아카데미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제공

장학재단, 미래 통일리더 키운다

하나은행과 아카데미 만들어 새터민-南 대학생 교류 화합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곽병선)과 하나금융그룹(회장 김정태)은 지난 8일 하나은행 대강당에서 미래 통일리더 아카데미 발대식을 개최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미래 통일리더 아카데미는 하나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새터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이 일 년 동안 통일과제 연구와 봉사활동을 통해 다가올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발대식은 새터민 대학생과 남한 대학생으로 구성된 총 20개 팀 100여 명이 참가했다.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통일리더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앞으로 통일시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은 축사에서 "새터민 대학생 및 남한 대학생 여러분의 교류, 연구, 봉사활동은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대, 사회적 공감대 확산 등 통일시대를 여는 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발대식 후에는 서울 도봉숲속마을에서 캠프를 개최 할 예정이다. 캠프는 통일리더십 교육, 통일연구과제 설정, 팀빌딩을 통해 통일 리더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팀 화합에 힘쓸 것이다.

앞으로 1년 간 통일리더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대학생은 팀당 매월 60만원 활동비를 지원 받으면서 통일에 대한 교육, 연구, 봉사 활동을 통해 전 사회적 통일 의식을 고취 할 예정이다. 또한 팀별 연간 활동 결과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할 계획이다.

/채신화기자 csh@metroseoul.co.kr

관광公, 외국인에 알리고 싶은곳 '찰칵'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

한국관광공사는 '제43회 대한민국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한국을 사랑하는 내·외국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6월 16일(화)부터 30일(화)까지로, 수상작은 한국을 홍보하는 이미지로 전 세계에 활용된다.

공모 주제는 새로운 관광슬로건 "Imagine Your Korea"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그들이 상상했던 것 이상의 감동을 줄 수 있는 관경을 발굴해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세계 속에 한국의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5가지 키워드, K-FOOD, K-WAVE, K-SPIRIT, K-PLACE, K-STYLE에 맞는 사진이 공모 대상이다.

총 100점을 시상하며 당선작은 8월 17일에 발표 예정이다.

세계 푸드스타일리스트 한 자리에

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博

한국푸드스타일리스트들의 축제인 '제12회 서울 국제 푸드 앤 테이블웨어 박람회'가 열린다.

올해 12번째로 열리는 이 행사는 오는 6월 4~6일까지 3일간 양재 aT센터에서 (사)세계음식문화연구원과 (사)한국푸드코디네이터협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박람회에는 도자기 그릇의 메카인 여주, 이천, 광주 등 국내 테이블웨어 대표적 제조 산업체와 식품관련 업체들이 참가한다.

일본, 중국등에서도 참가한다.

국내 식생활 테이블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이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 주최측은 국내외의 푸드스타일리스트, 요리사와 일반인, 학생 등 4만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볼거리 외에 특별 미니클래스를 진행한다.

광동제약 "비타500으로 착한 활력 나눠요"

착한선물 착한행운 이벤트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착한 드링크 '비타500'과 함께 하는 '착한 선물 착한 행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착한 선물 착한 행운' 이벤트는 5월 11일부터 오는 7월 10일까지 9주간 진행된다.

광동제약은 매주 수요일 추첨을 통해 1명에게 200만원 여행 상품권, 4명에게 160만원 여행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와 별도로 응모 즉시 당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비타500 기프티콘 8만 개도 제공한다.

'착한 선물 착한 행운' 이벤트의 응모 방법은 비타500 선물 박스(20병입)에 부착된 스크래치 카드의 경품번호를 비타500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된다. 관련 정보는 광동제약 비타500의 이벤트 페이지(http://www.vita500.com) 및 모바일 이벤트 페이지(스크래치 카드의 QR코드 접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비타500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가족과 좋은 시간, 착한 행운을 드린다는 의미로 기획되었다"며 "비타500으로 착한 활력을 나누고 가족여행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노인성 악골괴사증 집대성

김선종 교수, 치료법 발간

이대목동병원 치과 김선종 교수(구강악안면외과, 사진)가 최근 '치과에서 알아야 할 악골괴사증의 예방과 치료'를 발간했다.

이 책은 골다공증 치료 약물과 관련된 노인성 악골괴사 질환에 초점을 맞추어 예방과 치료 원리를 제시한 책으로 실제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는 치과 의사들이 치료 전에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도서에는 치의학과 치위생학과 학부-대학원에서 강의 교재와 개원한 치과 의사들이 참고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연구된 기초적인 내용과 전문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치과의사들의 환자 치료는 물론 관련 약물을 처방하는 의사들의 악골괴사증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종 교수는 증가하고 있는 노인성 악골괴사질환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강강술래, 가정의 달 맞이 경품 와르르

찰보리빵 공연티켓 등 푸짐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 풍성하고 다양한 경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달 31일까지 홈페이지(sullai.com)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증정한다.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 시설에서 생산된 안심 먹거리 '보리미 찰보리빵' 선물세트(40입)도 증정한다. 방부제를 넣지 않고 국내산 찰보리와 벌만을 100% 사용해 아침식사 대용식과 아이들 영양만점 간식은 물론 선물용, 손님접대 음식으로 좋다.

또 국립중앙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리는 '폴란드, 천년의 예술' 전시회 티켓(1인2매)도 준다. 쇼팽의 나라로 알려진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의 변화를 소개하는 첫 대규모 전시회다.

아울러 내 집을 감각있게 꾸미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인테리어 정보를 총망라한 '생글생글 인테리어의 모든 것'과 허벅지 부위를 제각에 맞게 부위별로 나눠 총 42개 운동 동작 7DAYS 프로그램을 소개한 '하루에 한동작 허벅지' 등 길벗 도서도 증정한다.

/김보라기자 bora@

르네상스 서울호텔서 봄날의 휴식 만끽

이달말까지 '원데이 패키지'

르네상스 서울 호텔은 주말 도심에서 따뜻하고 편안한 휴식을 즐기며 완연한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원데이 패키지'를 31일까지 선보인다.

모든 스프링 원데이 패키지에는 기본 공통혜택인 유리돔을 통해 비치는 자연광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수영장, 르네상스 레크레이션 센터 무료 이용과 사우나 50%를 포함한다.

'원 파인데이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기본 공통혜택을 포함해 18만원부터(10% 봉사료, 10% 세금 별도) 제공돼 실속 있는 휴식을 즐기고자 하는 고객에게 추천한다. 문의 예약 (02) 2222-8500

GS건설 "협력사와 동반성장이 경쟁력"

#GS건설 협력사로서 오랜 기간 토목공사를 수행해온 A사.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 여파로 2013년 자금경색이 발생했다. 누군가의 경제적 도움 없이는 그동안 일궈온 사업을 정리해야 하던 찰나 GS건설의 금융지원제도가 떠올랐다.
A사는 도움을 요청했고 GS건설은 경영지원금과 상생펀드를 통해 약 75억을 지원했다. 또 재무 전문가를 A사로 보내 재정 관련 소통을 강화하면서 건전성 개선을 도왔다. 덕분에 A사는 유동성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GS건설이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에 팔을 걷어 붙였다. 파트너사와의 상호교류가 곧 자사의 '경쟁력'이라는 판단에서다.

GS건설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에 빠진 협력사를 대상으로 150억원 한도의 경영지원금을 무이자로 대여해주고 있다. 30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은행과 협약을 맺은 뒤 협력회사 대출 시 금리를 지원하는 상생펀드도 운영 중이다. 현재 약 30개의 협력사가 이 같은 직·간접적 금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지난해 6월 5회째를 맞은 GS건설 동반성장협의회가 서울 종로구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렸다. GS건설은 주요 공종 20여개 협력회사 대표이사들과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동반성장협의회를 시행해 오고 있다. /GS건설 제공

경영지원금 무이자 대여·대출금리 지원도 사회적 책임 인정받아 지속가능업체 선정

협력회사에 대한 공사비도 공사 후 10일 이내 현금성 100%로 지급하고 있다. 동종업계에서도 상위의 대금 결제조건을 유지하며 동반성장을 도모한 결과 GS건설은 지난 2010년 9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가장 객관적인 지표로 인정받고 있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DJSI) 월드'에 처음으로 편입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후 2013까지 DJSI 월드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됐다. 특히 2012년에는 'DJSI 수퍼섹터 리더 기업'으로 선정됐다. DJSI 수퍼 섹터 리더 기업은 DJSI 월드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을 총 19개 산업분야로 나눈 뒤 해당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을 뜻한다. GS건설은 '건설& 자재 섹터'에서 1위를 차지,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건설업체로 활했다.

DJSI 월드지수는 재무적 정보뿐 아니라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기후변화 대응, 사회공헌 활동, 상생 협력 등 경제·사회·환경 부문까지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에 '따뜻한 기업', '착한 기업'의 객관적 척도로 불린다. 건설사 중에서는 전 세계 6개 업체만이 선정됐다.

이 같은 의미 있는 DJSI 지수에 4년 연속 편입된 GS건설은 "지속가능경영은 주주, 고객, 내부 임직원 등의 이해관계자와 투명한 소통을 가능케 하며 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된다"는 경영철학을 세웠다. 또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탑티어(top-tier) 건설사로서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다.

GS건설은 단순 대형건설사라는 이미지를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장기 성장이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환경, 경제, 사회 세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지속적이고 다양한 경영활동을 추진, 실천에 나섰다.

먼저 협력회사 의존도가 높은 건설산업의 특성과 전략적인 육성의 필요성을 고려했다. 이에 협력회사 선정과 입찰, 공정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상생경영을 정착시켜 투명하고 공정한 동반자적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그룹에서 실시하는 '공생발전협의회'와 연계한 '동반성장 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GS건설 최고경영진과 임원과 협력회사 CEO 간 소통강화와 실질적인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Great Partnership 동반성장 협의회'와 'Xi CEO 포럼'이 그것이다.

이 중 'Xi CEO 포럼'은 협력회사 대표와 GS건설 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GS건설의 대표 동반성장 활동으로 꼽을 수 있다. 또 'Great Partnership 동반성장협의회'는 주요 공종 20여 개 협력회사 CEO들과 보다 깊이 있는 소통을 하고자 2011년부터 만들어진 제도로, 협력사의 애로·건의사항 수렴의 장이 되고 있다.

협력회사 육성을 위한 교육제도로는 차기 CEO교육, 현장소장교육, 실무자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안전실행력 강화를 위해 건설사 최초로 체험형 안전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무재해를 위해 힘쓰고 있다.

더불어 채권 가술지원 등과 같은 각종 지원책을 통해 협력업체 육성은 물론 궁극적으로 GS건설의 비전인 베스트 파트너 달성을 위한 상호 윈-윈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GS건설 조달본부장 최귀주 상무는 "동반성장을 위한 투자비용이 적지 않게 들지만 건설사와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이야말로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협력업체들 사이에서 GS건설의 이미지가 높아진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대단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박선옥기자 ssn530@metroseoul.co.kr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II 평균경쟁률 2.03대 1로 청약 마감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첫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로 주목을 받은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II'가 전 주택형 순위 내 마감됐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8일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II 814가구(특별공급 제외)에 대한 1·2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결과 총 1652명이 접수해 평균 2.0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무주택자만 청약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임에도 이처럼 청약자가 몰린 데는 일반아파트에 뒤처지지 않는 우수한 상품 구성 때문이다. 단지에는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췄으며 세대 내부에는 넓은 드레스룸과 알파룸, 팬트리 등의 최신 설계를 적용됐다.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II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금강주택 제공

분양가는 84㎡A 기준 3.3㎡당 800만원 후반대부터 시작한다. 최근 공급된 동탄2신도시 일반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확정분양가가 책정됐다. 15일 당첨자 발표 후 20~22일까지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금강주택 분양 관계자는 "동탄2신도시 최초의 민간건설 임대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분양 전부터 인근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문의가 이어졌다"며 "청원 계층 만큼 좋은 아파트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동탄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II는 지상 25층, 10개동, 전용면적 69~84㎡, 총 908가구 규모다. 입주는 2017년 하반기 예정이다. 문의번호 1899-5733

/박선옥기자

'수익에 밀린 안전' 서울메트로, 노조 요청에도 '침묵'

서울메트로가 수익성만 우선하고 안전을 등한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급기야 노조가 '지하철이 세월호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주요 역사를 돌고 있다. 사측의 안전불감증을 꼬집는 동시에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지하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아침 출근 시간에 서울지하철 4호선 총신대입구역에서 서울역 방향 열차운행이 중단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3월 분당선 왕십리역에서 정차 중이던 전동차 차상 변압기에서 불꽃이 튀어 승객들이 긴급 대피한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그에 앞서 대형사고도 잇달았다. 지난해 5월 4호선 금정역에서는 전동차 절연장치가 폭발했다. 스크린도어 유리가 파손되면서 11명이 다쳤다. 같은 달 2호선 상왕십리역에서는 잠실행 열차가 앞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다. 뒤쪽 차량의 안전거리 유지 장치 고장이 주된 이유였다. 이 때문에 승객 250여명이 부상했다.

연이은 지하철 안전사고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승객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지속해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서울메트로 측은 묵묵부답이다. 잦은 사고가 이어짐에도 과거 기준에서 개선된 점은 없다.

서울메트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전동차의 정비 주기는 조정했다. 경정비 주기는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바뀌었다. 중정비 중간검사도 2년에서 3년으로, 전반검사는 4년에서 6년으로 늘었다.

반면 안전 점검을 위한 인력은 줄었다. 전동차 정비 정원은 ▲2000년 2631명 ▲2007년 2310명 ▲2007년 2374명 ▲2008년 2249명 ▲2009년 이후 2082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안전 문제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2011년 6월에는 검사항목이 10% 이상 강화됐다.

남상우 서울지하철노조 정책부장은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사람을 줄이더니 검사 항목을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업무 강도만 더 높아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서울메트로 측은 "추가 인력 고용 계획은 없지만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합쳐지면 효율성이 높아져 업무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년 3월 19일부터는 25년에서 최대 40년이던 전동차 사용내구연한도 도시철도법 개정에 따라 삭제됐다. 대신 노후차량 계속사용 여부 평가가 5년 주기로 이뤄진다.

/윤정원기자 yunjw@

metro entertainment E

3년 만에 완전체 컴백 빅 뱅

3년 만에 멤버 다섯 명이 '완전체'로 모인 빅뱅이 지난 1일 싱글 앨범 'M'을 발표했다. 신곡 '루저(LOSER)'와 '뱅뱅(BAE BAE)'가 담긴 이 앨범은 열흘이 넘은 현재까지 음원 차트 정상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그 반응도 뜨겁다.

◆ 빅뱅이기에 가능했던 도전

이번 앨범은 'MADE' 프로젝트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빅뱅은 이달 'M'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매달 1일마다 차례로 'A' 'D' 'E'라는 이름의 싱글 앨범을 발표할 계획이다. 데뷔 9년차이지만 정규 앨범은 2장이다. 공백이 길었던 만큼 이번엔 정규 앨범을 기대하는 팬들이 많았다.

"저희도 (정규) 앨범을 내고 싶었어요. 근데 한 곡, 한 곡 집중하면서 뮤직비디오를 다 찍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정규 앨범에선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앨범 싱글로 내면서 최대한 많은 노래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진행하게 됐어요." (태양)

8월까지 발표된 4장의 싱글은 9월 1일 '메이드(MADE)'라는 앨범으로 완성된다. 이 앨범이 앞서 발표된 싱글로 채워질지, 아예 새로운 곡이 담길 지는 미지수다.

"데뷔 때도 한 달에 한 장씩 싱글을 발표했어요. 그 땐 우리를 알리는 게 목표였고, 곡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걸 한다기보단 시켜서 하는 느낌이 강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색깔과 방향성이 잡힌 상태에서 저희가 원하는 걸 하면서 즐기고 있죠. 재밌어요." (지디)

◆ 가장 '빅뱅스러운' 음악

그렇다면 빅뱅의 색깔과 방향성은 무엇일까. '루저'와 '뱅뱅' 중 빅뱅의 기존 음악과 더욱 가까운 것은 또 무엇일까.

"빅뱅의 색깔을 정의내리긴 어렵지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자신 있는 것들을 찾은 것 같아요. '루저'와 '뱅뱅'을 제일 먼저 발표했다고 해서 이 곡들이 약한 것도 아니고 제일 좋은 곡인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나올 노래가 더 좋아요?'라고 말하기도 어렵죠. 모두 듣는 귀가 다르니까요. 저희한텐 모든 노래가 좋기 때문에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드릴지 고민할 뿐이에요. 다른 건 생각 안하려 해요." (지디)

8월까지 매달 1일 싱글 발표
9월 완성 앨범 'MADE' 발매
"긴 공백만큼 오래 활동 할 것"

빅뱅은 멤버 각자의 개성이 매우 뚜렷한 팀이다. 이들은 유닛 또는 솔로로 활동하며 각자의 음악적 욕구를 해소한다. 하지만 빅뱅으로 모였을 땐 철저하게 빅뱅다운 음악을 한다. 리더 지디는 "대중 가수니까 대중적인 노래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저희 노래를 대중적이다, 아니다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좋은 노래가 결국엔 대중적인 노래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좋아할 노래를 하고 싶죠." (탑)

빅뱅의 보컬라인은 태양-승리-대성이다. 맑은 이들은 대망이 빅뱅 노래의 후렴구를 부르리라 예상했지만, '루저'에선 막내 승리가 모두 도맡아 불렀다.

"자유에 헤어 요즘 절 좋아해서 그렇게 됐어요(웃음). 사실 후렴구는 꼭 누가 불러야 한다는 건 없었어요. 원래 가이드는 여자 목소리였는데 제가 불러보니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가게 된 거죠." (승리)

빅뱅은 긴 공백만큼이나 길게 활동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탑은 SNS 계정까지 새로 만들어 팬들과 소통 중이다.

"팬들이 서운해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실 새 앨범 홍보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팬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폭풍 업데이트 중이에요." (탑) /김지민기자 kimjiom@metroseoul.co.kr

star bag

대만 음악 시상식 초청

가수 **로이킴**이 대만의 음악 시상식 '2015 HITO 뮤직어워드'에 참석한다. 배출확권스타로서는 이례적 초청이다. 로이킴은 지난해 정규 2집 '홈'과 드라마 '피노키오' OST 등으로 대만의 각종 음악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모았다고 소속사는 설명했다. 로이킴은 "대만에서 뜻 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매우 설렌다"고 소감을 밝혔다.

커플 화보 공개

가수 **하하·별** 부부가 커플 화보를 공개했다. 한류매거진 '케이웨이브'의 감각적인 화보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운 패션으로 세련된 커플룩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하하는 화이트 수트와 캐주얼한 블랙 수트로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였다. 별은 사랑스러운 느낌의 블랙 원피스와 캐주얼한 화이트 원피스로 로맨틱한 느낌을 연출했다.

신곡 '알아 알아'로 데뷔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1' 출신인 **데이비드 오**가 신곡 '알아 알아'를 발표하고 가수로 데뷔한다. '알아 알아'는 걸그룹 에이핑크 보미가 피처링한 곡으로, 친구와 연인 사이의 알쏭달쏭한 감정을 그렸다. 소속사는 "'알아 알아'는 발라드 감성으로 위로하는 데이비드 오와 상큼한 보미의 목소리가 잘 어우러진 곡"이라고 소개했다.

세월호 추모 공연 참여

록그룹 **전인권밴드**가 세월호 추모 공연에 참여한다. 전인권밴드는 오는 25일 오후 4시 16분 마포구 서교동 롤링홀에서 열리는 '날일곱살의 버킷리스트 (부제 2학년 5반 이야기)' 세 번째 공연 무대에 오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전인권밴드는 흔쾌히 출연 의사를 밝히며 "이 공연이 아이들을 기억하는 무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무대 의상은 치마에 힐"

보아 '여성미 무장'… 8집 '키스 마이 립스'로 컴백

파워풀하고 화려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가수 보아(사진)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무대에 서겠다고 약속했다.

선 공개곡 '후아유(Who Are You)'로 컴백 신호탄을 쏘아올린 보아가 자작곡으로 꽉 채운 정규 8집 '키스 마이 립스(Kiss My Lips)'로 돌아왔다. 보아는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SM TOWN 코엑스 아티움에서 음감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물을 선보였다.

보아는 총 12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 전곡 작사·작곡·프로듀싱에 참여했다. 앞서 자작곡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정규 앨범 전체를 자작곡으로 꾸민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그가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여성스러운 면이다.

그는 "국내 무대에서 힐을 신은 적은 있어도 치마를 입고 노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타이틀곡 '키스 마이 립스' 때는 바지를 벗고 치마를 입었다"며 "의도적으로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려면 노래가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어울리는 노래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록곡 '그린라이트'에 대해 "작년에 음악 작업하면서 JTBC '마녀사냥'을 굉장히 열심히 봤다. 거기서 따온 제목"이라며 "시청자 사연을 보며 영감을 많이 받았다. 사람이 뭘까 생각하며 간접경험을 통해 만든 노래다. 금요일 저녁에 보고 토요일에 썼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아는 12일 오전 0시 정규 8집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김민구기자 [illegible]

가면에 가려진 슬픈 얼굴

'오페라의 유령' 아류 아닌 '팬텀' 그 자체
킬링 넘버 부재·필요 이상의 세트 '혼란'

musical review

■ 팬텀

실력파 보컬을 가려내는 MBC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이 화제다. 가면이 편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무기라는 걸 새삼 느낀다. 뮤지컬 '팬텀' 주인공 팬텀 역시 복면을 쓰고 있다. 가면은 흉측한 얼굴을 가리기 위한 용도지만 그가 사랑한 여인 크리스틴 다에는 가면을 통해 팬텀의 내면을 볼 수 있었다. 관객도 약 3시간 공연 동안 팬텀의 감정을 따라가며 가면 속 그의 표정을 상상할 수 있다. 출연진의 연기, 노래, 극의 구성이 몰입감을 높이기 때문이다.

뮤지컬 '팬텀'은 가스통 르루의 소설 '오페라의 유령'을 원작으로 한다. 그러나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는 앤드루 로이드 웨버의 '오페라의 유령'(1986) 아류로 인식돼 왔다. 다국적 제작진과 EMK뮤지컬컴퍼니가 함께 한 뮤지컬 '팬텀' 한국 초연은 굳이 '오페라의 유령'과 비교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가치가 충분하다.

크리스틴 다에에게 초점을 맞춘 1부는 화려하다. '오페라의 유령' 특유의 묵직한 분위기를 생각한 관객이라면 아기자기한 무대 연출에 당황할 수 있다. 그럼에도 크리스틴 다에가 파리 오페라 극장에 입성해 팬텀을 만나 보컬 수업을 받는 모습은 귀를 간지럽힌다. 간간이 등장하는 팬텀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팬텀이 "저 여자 목소리는 내 얼굴보다 끔찍해"라고 평가한 마담 카를로타의 코믹 연기는 일품이다.

2부는 팬텀의 이야기다. 팬텀이 극장 지하에 사는 이유, 그의 유년 시절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1부의 발거운 전개에 '왜'라는 의문이 해결되면서 작품은 힘을 갖게 된다. 관객은 팬텀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한다. 특히 지하로 이동할 때 타는 배, 팬텀 부모님의 연애를 발레로 표현한 장면이 백미다.

오페라와 뮤지컬 음악이 어우러진 넘버로 작품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다만 강렬한 인상을 남긴 킬링 넘버가 없다. 또 오페라 극장의 상징인 샹들리에가 웅장하게 구현되지 못한 점, 필요 이상으로 자주 등장하는 여러 개의 세트가 아쉽다. 뮤지컬 '팬텀'은 7월26일까지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차승원·유준상 '고산자'로 격돌

강우석 신작 캐스팅

배우 차승원, 유준상이 강우석 감독의 신작 '고산자, 대동여지도' 출연을 확정했다고 제작사 시네마서비스가 11일 밝혔다.

차승원은 '고산자, 대동여지도'에서 주인공 고산자 김정호 역을 맡는다. 차승원과 강우석 감독은 15년 지기로 수많은 흥행작에서 주연배우와 제작자로 함께 했다. 그러나 강우석 감독의 연출작에서 차승원이 주연을 맡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준상은 고산자의 운명적 정적이자 조선 후기 최고의 카리스마를 보여준 흥선대원군 역에 낙점됐다. '이끼' '전설의 주먹'에 이어 세 번째로 강우석 감독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차승원 · 유준상

'고산자, 대동여지도'는 잘못된 지도로 인해 목숨을 잃은 아버지 때문에 그 누구보다 지도에 대한 열망을 품게 된 김정호가 마침내 조선 최대의 전도 대동여지도의 목판본을 만들게 되면서 시대의 운명과 맞서게 된다는 내용의 영화다. 박범신 작가의 소설 '고산자'가 원작이다. 올 여름 첫 촬영을 앞두고 있다. /장병호기자 [illegible]

전설의 대진표가 완성됐다
고수들의 손맛전쟁
한食대첩3
5월 21일 |목| 밤 9시 40분 첫방송
Olive

공효진 "김수현 많이 혼내서 걱정돼요"

배우 공효진과 김수현이 KBS2 '프로듀사'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KBS2 첫 금토드라마 '프로듀사'서 PD로 맞짱

배우 김수현이 공효진의 먹잇감이 됐다.

김수현과 공효진은 KBS2 새 금토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신입 PD 백승찬과 8년 차 예능국 PD 탁예진 역을 맡았다.

11일 강남구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공효진은 "탁예진은 계속 인상을 쓰고 가르치려고 한다. 나는 백승찬을 혼내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있다. 김수현을 쥐 잡듯이 잡아서 미움을 받을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김수현에 대해선 "백승찬과 달리 눈치가 빠르다. 똑똑한 친구고 노래도 잘 부른다"며 "대기실이 옆인데 항상 노래를 한다. 촬영이 시작되는 걸 알 정도로 음치임이 분주하다"고 비화를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은 "케미를 기대해달라. 나는 공효진의 밥이다. 탁예진은 혼내는 걸 재미있어하는 인물"이라며 "혼나면서 탁예진에게 끌린한다. 백승찬처럼 눈치가 없으면 정말 짜증날 것 같다"고 캐릭터를 소개했다.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 김수현은 전작 SBS '별에서 온 그대' 속 우수에 찬 모습과 다른 동그랗고 말똥말똥한 눈빛이다.

그는 "특별히 눈을 크게 뜨려고 하진 않았다"며 "신입으로서 경험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많다 보니까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진다. 그런 면을 표현하려다 보니 눈이 커졌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비달끼 있는 캐릭터를 통해 힘 빼는 연기를 하고 싶었다. 스스로를 내려 놓은 모습을 기대해달라"며 "시청률이 잘 나오면 좋지만 부담은 사서 느끼려고 하진 않는다. 누구나 신입이었던 적이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공감을 얻고 싶다"고 관전 포인트를 설명했다.

김수현·공효진 외 차태현·아이유가 출연하는 '프로듀사'는 KBS 최초 금토드라마다. 오는 15일 오후 9시15분 첫 방송된다.

/전효진 기자 jeonhj@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 SBS 썸남썸녀 오후 11시 15분

채연·윤소이의 2대 2 미팅

채연과 윤소이가 2대 2 미팅을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다. 그녀들은 미팅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 너무 예쁘게 하지 말라며 견제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낸다. 긴장한 모습을 보이던 둘은 미팅에 등장한 훈남들을 보고 입꼬리가 올라간다. 뒤이어 미팅 후 1대 1 소개팅을 하며 서로에 대해 진지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진다.

◆ JTBC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오후 11시

'한인고등학교' 편 첫 번째 이야기가 방송된다. 이번 편에는 카이스트에 재학 중인 미공개 여신 윤소희와 '식스맨'에 출연해 예능감을 뽐냈던 CEO 홍진경, 예체능 강자 전효성,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 김범수, 군장을 벗은 김수로가 출연한다.

◆ KBS1 창의 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오후 11시 40분

카이스트 전자 및 전기공학과 김대식 교수가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 강의한다. 50년간의 인공지능 연구로 등장한 다양한 기계를 보며 가까운 미래에 생각하는 로봇이 현실이 되면 인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본다.

◆ MBC 폭풍의 여자 오전 7시 50분

신규 브랜드 행사에서 일어난 도혜빈(고은미)과 정임(송이우)의 난투극이 인터넷에 퍼져 박현성(정찬)은 이를 덮으려다 실패한다. 강현사는 현성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듣고 혜빈과 거래하려 하고 한정임(박선영)은 이를 잡으려 한다. /정리=이금준기자

※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2일 (화)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E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생방송 투데이	00 [illegible] 28회 35 [illegible] 25 내 친구 [illegible] 40 [illegible]	00 [illegible] 25 Real Fun Word 1 (재) [illegible] 50 Real Fun Word 2 (재) 55 [illegible]
19시	00 KBS 뉴스 7 30 [illegible]	50 오늘부터 사랑해 (27회)	15 [illegible] (88회)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168회)	00 [illegible] 30 EBS 뉴스 50 [illegible]	[illegible] 20 [illegible] 30 Real Fun Word 40 [illegible] 50 [illegible]
20시	25 가족을 지켜라 (3회)	30 번역 동물 극장 [illegible] (23회) 55 1 대 100	55 [illegible] (14회)	00 SBS 8 뉴스 55 SBS 뉴스토리	40 다큐 오늘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 (재) [illegible] [illegible] 30 [illegible] (재)
21시	00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20 EBS 다큐 프라임	[illegible] 다큐 오늘 [illegible]
22시	[illegible] 50 [illegible]	10 후아유 - 학교 2015 (8회)	00 화정 (16회)	00 풍문으로 들었소 (28회)	45 리얼극장	00 [illegible]
23시	00 KBS 뉴스라인 40 창의인재 프로젝트 생각의 집	10 우리동네 예체능	15 PD수첩	15 썸남썸녀	35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24시	15 [illegible]	5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illegible]	10 MBC 뉴스 24 35 MBC 100분 토론	15 나이트라인	[illegible] (재) [illegible]	30 K-POP으로 배우는 [illegible]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illegible] (45회) (재)		30 SNL 코리아 시즌6 (11회)			◆ 프로야구 [illegible] NC vs LG (SPO TV+, SPO TV) 두산 vs SK (SKY TV) [illegible] (KBS N SPORTS, SPO TV2) KT vs KIA (SBS SPORTS, [illegible]) 넥센 vs 롯데 (MBC SPORTS+) ◆ [illegible] [illegible] 화성 FC vs [illegible]
19시	50 JTBC 뉴스룸	10 [illegible] (18회) (재)		00 코스모스 (1회)	00 [illegible]	
20시	50 JTBC 뉴스룸	40 현장토크쇼 TAXI (379회)	00 오늘 뭐 먹지? (37·53회)	00 코스모스 (5회)		
21시	40 [illegible] (20회)	40 삼시세끼 2 (11회) (재)	30 [illegible] 2015 (15회)	00 코스모스 (13회)	35 [illegible]	
22시			00 오늘 뭐 먹지? (96·33회)	00 [illegible] 스타 토크 (1회)		
23시	00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44회)	00 삼시세끼 2 (12회)	00 [illegible] 2015 (10회)	00 [illegible] [illegible]		
24시	20 [illegible] (61회)	20 현장토크쇼 TAXI (379회) (재)	00 [illegible] (1회) 20 [illegible] 2015 [illegible] (2회)	00 [illegible]	10 [illegible]	

'강추' 날았다

강정호 선제 솔로포에 결승타 · 추신수 연타석 2루타

코리안 메이저리거들이 또 장타를 터뜨리며 환호했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시즌 2호 홈런과 결승타를 날리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다. 5월에 살아난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는 연타석 2루타를 터뜨리고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벌였다.

강정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2번 타자 겸 3루수로 선발 출전해 0-0이던 1회 1사 주자 없는 첫 타석에서 직선타로 펜스를 넘기는 선제 솔로포를 날렸다.

2스트라이크의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타일러 라이언스의 150㎞ 직구가 복판으로 몰리자 그대로 잡아당겨 왼쪽 펜스를 넘어가는 아치를 그렸다. 지난 3일 세인트루이스전에서 9회 극적인 동점포로 빅리그 통산 첫 홈런을 터뜨린 이래 일주일 만에 나온 홈런포다.

3회 두 번째 타석에서는 날카로운 타구를 날렸으나 유격수 정면으로 간 바람에 아쉽게 출루에 실패했다. 5회에는 삼진으로 돌아섰다.

이어 3-3으로 맞서던 7회 다시 찬스가 찾아왔다. 선두 타자가 볼넷으로 출루하자 클린트 허들 감독은 포수 조시 해리슨에게 보내기 번트를 지시했고, 1사 2루에서 강정호가 타석에 들어섰다.

강정호는 세인트루이스 우완 구원 투수 미치 해리스의 시속 153㎞짜리 몸쪽 빠른 볼을 힘으로 끌어당겨 좌익수 앞으로 가는 안타를 터뜨렸고 2루 주자는 여유 있게 홈을 밟았다.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결승타를 끝까지 지켜 4-3으로 이겼다.

강정호의 시즌 타점은 9개로 늘었다. 또 이틀 연속이자 시즌 6번째 멀티 히트를 작성해 시즌 타율은 0.318에서 0.333(48타수 16안타)으로 급등했다.

경기 후 MLB닷컴과 피츠버그 지역지 피츠버그 포스트 가제트 등 미국 언론은 "강정호가 경기 초반 홈경기 첫 홈런을 쳤고 7회 동점 균형을 깨뜨리는 안타를 기록해 피츠버그의 4-3 승리를 이끌었다"며 "어머니의 날(5월 둘째 주 일요일) 강정호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총평했다.

추신수는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원정경기에서 1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2안타를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83(93타수 17안타)까지 올라 2할 진입을 눈앞에 뒀다. 1일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전부터 10경기 연속 안타 행진이다.

첫 타석에서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선 추신수는 3회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탬파베이 우완 선발 투수 제이크 오도리지의 몸쪽에 박히는 빠른 볼(시속 143㎞)을 잡아당겨 우측 선상을 타고 가는 2루타를 날렸다. 5회 2사 주자 있는 상황에서도 비슷한 코스로 들어온 오도리지의 빠른 볼을 끌어당겨 역시 같은 방향으로 안타를 쳤다.

텍사스는 1-1이던 8회 무사 1·2루에서 터진 애드리안 벨트레의 적시타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강정호가 10일(현지시간) 열린 메이저리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홈경기에서 1회 첫 타석에서 선제 솔로포를 날린 뒤 3루 베이스 코치와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롯데 선발진 붕괴 6연패 '위기설'

이상화 1군 엔트리 제외

롯데 자이언츠가 5월 들어 극심한 부진을 겪으며 위기에 빠졌다. 최근 SK 와이번스, NC 다이노스와의 3연전을 모두 내주며 6연패에 빠져 8위까지 추락했다. 5월 치른 9경기에서 승수는 고작 1승이다.

5월 팀 평균자책점은 5.68로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높다.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이 7.14에 달한다.

지난달 후반 롯데는 KT 위즈와 5대 4의 대규모 트레이드를 했다. 장성우, 하준호, 최대성 등을 내주고 박세웅, 이성민 등을 데려왔다. 타력의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가장 큰 고민거리였던 불펜진을 보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이후 롯데는 장점이었던 선발진이 무너지고 타선이 부진하면서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4선발 이상화(사진)는 5월 들어 두 경기 선발 등판해서 모두 2회를 채우지 못하고 무너졌다. 3선발 송승준은 옆구리 부상으로 1주 가까이 전력에서 이탈하게 됐고, 2선발 브룩스 레일리는 5월 2경기에서 2패에 평균자책점 5.25로 부진에 빠졌다.

결국 이종운 롯데 감독은 11일 이상화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재충전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상화가 1군 전력에서 제외됨에 따라 롯데는 옆구리 부상으로 재활 중인 송승준과 더불어 선발 로테이션 두 자리에 구멍이 생겼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구멍이 난 선발 자리는 구승민과 김승회로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홍익대를 졸업하고 2013년 6라운드 전체 52번으로 롯데에 지명된 구승민은 올해 퓨처스(2군)리그에서 9경기에 등판해 6승 1패 평균자책점 3.31을 기록 중이다.

올 시즌 마무리로 나섰다가 부진으로 2군에 내려간 김승회는 2군에서 선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다. 김승회는 스프링캠프에서도 선발로 뛴다는 가정하에 시즌을 준비했기에 선발 등판에는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김민준기자

윤규진 불펜 피칭 한화 '희망가'

불펜진의 부담이 가중되면서 5월 들어 승보다 패가 많았던 한화 이글스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화 구단은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지난달 12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던 윤규진이 조만간 1군에 복귀한다고 11일 밝혔다. 윤규진은 전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 앞서 불펜피칭 30개를 했다. 어깨 통증으로 1군 엔트리에서 빠진 후 처음 한 불펜피칭이다. 9일 캐치볼을 빼고 35개의 공을 던진 뒤 통증이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10일 직구와 변화구를 섞어 불펜피칭을 했다.

윤규진은 "트레이닝 코치님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 1군 복귀 시점도 코칭스태프에서 정할 것"이라면서도 "다행히 공을 던져도 통증이 없다. 몸 상태는 최상"이라며 1군에 빨리 복귀하고 싶은 소망을 드러냈다.

한화는 필승 불펜진으로 송창식, 박정진, 권혁을 활용하고 있다. 지난달 한화는 이들의 막강 불펜진으로 5할 승률을 넘기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선발진이 약한 한화는 필승조의 등판 횟수가 늘어나면서 5월 9경기에서 4승5패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 5~7일 막내구단 KT 위즈에 2패를 했다. 지난 주말 두산전에서 첫 경기를 승리한 뒤 내리 2경기를 내줬다.

김성근 한화 감독은 "필승조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윤규진의 복귀는 큰 힘"이라고 흐뭇해했다. 권혁도 "윤규진이 오면 불펜이 한층 강해진다"며 동료의 빠른 복귀를 희망했다.

/김민준기자

윤규진

'영건' 파울러, 플레이어스 우승

'영건' 리키 파울러(27·미국·사진)가 제5의 메이저골프대회로 불리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다.

파울러는 11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 베드라비치의 소그래스TPC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후반에만 무려 6타를 줄이는 맹타를 휘둘렀다.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친 파울러는 케빈 키스너(미국),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와 동타를 이룬 뒤 연장 네 번째 홀에서 버디를 낚아 우승을 결정지었다.

파울러는 이번 우승으로 거금 180만 달러(약 19억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날 2타차 공동 5위로 출발하며 우승을 노렸던 재미동포 케빈 나는 1타를 줄이는데 그쳐 공동 6위(9언더파)에 머물렀다. 배상문은 재미동포 제임스 한과 함께 공동 30위(4언더파)에 올랐다. 최경주는 공동 42위(2언더파)를 기록했다.

지난달 마스터스 토너먼트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4라운드를 소화한 타이거 우즈는 공동 69위(3오버파)로 대회를 마쳤다.

/김민준기자

Still a Communicating Icon or not?

Communicating icon, Mayor Park Won Soon is being embroiled in controversy. Mayor Park stated on the 10th that he will complete the Seoul Station overpass within his tenure.

But the South Gate Market merchants are strongly opposing because of the heavy traffic congestion. Park has looking at the economical growth that can be made possible when the overpass can become a park.

The merchants in South Gate Market are strongly against this because this may bring the downfall of the marketplaces and also bring heavy traffic jam.

The Seoul Station Overpass was opened to citizens this day and thus is the 2nd time in 45 years. This was not opened for people ever since the tape cutting ceremony in 1970 held with former president Park Jung Hee and his wife.

Seoul emphasized the lifestyle people can enjoy such as eating, watch performances, read and just kick back and relax. There were approximately 48 thousand people who have visited the Seoul Station Overpass. This is four times the number compared to 13 thousand visitors last year October.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요한) 강사

소통시장? 불통시장?

소통의 상징이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불통시장' 논란에 휩싸였다. 박 시장은 '임기 내 서울역 고가 대체도로를 완공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남대문 시장 상인은 거세게 반대했다. 교통혼잡을 우려해서다.

박 시장은 서울역 고가가 공원화될 경우 경제적 재생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대문 시장 상인들은 서울역 고가 공원화 사업은 남대문시장 일대 상권 약화와 교통난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역 고가는 이날 시민에게 개방됐다. 45년 만에 두 번째다. 서울역 고가는 1970년 준공 당시 때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가 테이프 커팅을 위해 걸어 올라갔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행 공간으로 개방된 사례가 없었다.

시는 고가에서 도시락을 먹고 공연을 보고 책도 읽으며 머무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날 고가를 방문한 시민은 4만8000명에 달한 것으로 서울시는 집계했다. 지난해 10월 첫 개방 당시 방문객 1만3000명의 4배에 가까운 규모다.

'벤츠코리아' 중고차시장 진출규제 국내업체랑 같아야

김종훈의 재계 바로보기

중소기업적합업종(이하 적합업종)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중고차매매업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선정한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신규진입과 확장이 금지됐다. 그러나 연간 2조 매출 규모의 벤츠코리아는 중고차 매입 판매 서비스 브랜드 '스타클래스(StarClass)'를 통해 중고차 시장 잠식에 나섰다. 외국계 기업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는 허점 때문이다.

통상 중고차 시장은 진입장벽이 낮아 대기업의 인적성검사 시험이나 영어성적 등 까다로운 절차 없이도 대기업만 고집하지 않는 같은 청년 실업자에게 기회를 주는 직장 중 하나다. 세상 모두가 대기업만 고집하다 보면 실업자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시장에 대기업과 외국계 글로벌 기업이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다 보면 이들은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이 같은 시장구조에 의식이 깨어 있는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경우 '수입차 브랜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반위도 "자동차 매매 사업에 대해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다. 중고차시장은 영어 점수가 없어도, 일하고 싶은 열정만 있다면 도전할 수 있는 젊은 청년들의 희망일터이다. 중고차시장을 벤츠 같은 외국계 대기업의 그늘에서 보호하는 것도 동반위가 만들어진 취지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벤츠코리아가 한국의 법을 외면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이미 한국에서 돈벌이를 해 자국에 거의 모두 송금하고 한국사회에 기부가 인색하는 등의 병폐는 많이 알려졌다.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부터 시행된 후 현실을 반영한 개편이 빨리 빠르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상 판별을 일일이 살펴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제도가 현실적 보호에는 미흡하다는 주장도 이 같은 문제 때문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강력한 법적 장치를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규모 기업집단의 자산 집중도는 60%에 이른다. 이 같은 대기업의 시장지배 강화는 전체 기업 수의 99.9%, 고용의 86.9%를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의 장기화, 성장 잠재력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벤츠 같은 글로벌 기업의 적합업종 침범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팀장

'갤럭시S6 시리즈'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기자 수첩
양성운 <산업부 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가 출시(4월 10일)된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출시 초기 갤럭시S6 시리즈 대박론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의 첫 스마트폰 갤럭시S(2010년 출시)부터 갤럭시S5까지 1000만대 돌파 시점은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꾸준히 단축되는 분위기였다. 출시하는 제품마다 대박 행진을 이어갔다.

실제 2010년 5월 출시된 갤럭시S는 7개월만에, 갤럭시S2(2011년 4월 출시)는 5개월, 갤럭시S3(2012년 5월 출시)는 2개월, 갤럭시S4(2013년 4월 출시)는 한달만에 1000만대를 돌파했다. 갤럭시S5의 경우 출시 한 달만에 1100만대 이상 판매됐다.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 역시 출시 초기 일부 제품에서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로 언론은 칭찬 일색이었다.

그러나 갤럭시S6 시리즈의 대박론은 전망에 그쳤다. 마케팅을 한다고 잘 팔리는 건 아닌가 보다. 최근 독자들은 칭찬 일색의 언론은 신뢰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블로거들 돈주고 사들여 블로그마케팅을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독자들이 구조를 파악하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냉정한 평가를 더욱 선호한다.

시장조사전문업체 애틀러스리서치앤컨설팅의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S6 시리즈는 출시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최적화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는 아이폰6 시리즈 견제에도 실패한 분위기다. 아이폰6 시리즈는 출시 이후 완만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이후 오히려 판매 저하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글로벌 시장도 힘겹다. 갤럭시S6와 S6 엣지의 일본 시장도 점유율 하락세다. 제품에 회사 이름까지 지웠지만 출시 2주 만에 판매량 순위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6 시리즈 출시 한 달째를 맞았지만 판매 수치 공개에 대해 묵언수행 중이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영화 '어벤져스2'를 관람한 뒤 갤럭시S6 시리즈의 글로벌 판매량을 묻는 질문에 "잘 나가고 있다"는 답변만 내놨다. 1000만 대 돌파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때문에 갤럭시S6 출시 초기 증권가의 '대박론'과 '이재용폰' 이라는 단어도 사라졌다. 삼성전자의 올해 실적 운명을 쥐고 있는 갤럭시S6 시리즈가 흥행참패로 결론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리더십과 신종균 IM부문 사장의 경영전략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는 메모할 자유조차 없나

기자 수첩
이홍원 <사회부 기자>

"잠깐만요. 수첩 메모가 녹음이랑 뭐가 다릅니까? 아무리 공개재판이라 해도…"

지난달 29일 서울 동부지방법원 민사21부 심리로 열린 신세계 이마트 관련 '취업규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판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고[illegible] 재판장이 던진 말이다.

고 판사는 공판을 시작하기도 전 기자가 노트북으로 재판 과정을 기록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기자는 "재판 과정을 수첩 메모로 대체 하겠다"고 했지만 재판장은 여전히 '불통' 이었다. 법정 분위기는 싸늘했다.

그는 수첩 메모 허용을 두고도 고심했다. 다른 재판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공개 재판에서 수첩 메모는 기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취재도구다. 대부분 판사들은 재판 분위기를 해지지 않는 선에서 이런 정도의 취재는 허용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다. 특별히 제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고 판사의 제지를 수용한다면 공판 과정을 오로지 기억에만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언론 취재를 막으면 정작 피해는 국민들이 본다. 우리 헌법은 공개재판주의를 기본질서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모든 국민이 모든 재판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언론이 그 매개역할을 한다. 재판장의 생각대로라면 공개재판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는 침해될 수밖에 없다. 만약 사법부 전체가 이런 비밀주의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

알권리는 사법부를 비롯한 어떤 권력기관도 언론의 정보수집과 공개를 함부로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재판장의 질서유지권은 말 그대로 원활한 공판진행을 위해서만 발동될 수 있는 권한이다. 기자의 취재자체를 억압하는 규제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판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나마 법정을 지켜볼 권리가 있는 국민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